

미 성경과 정치: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개요와 배경

성경말씀: 딤후3:10-17

책 소개: 성경과 정치, 웨인 그루뎀, 2010년 존더밴 출판사, 620쪽

저자 소개

웨인 그루뎀(1948년), 복음주의 신학자, 신학교 교수, 저자, 현시대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신학자 중 한 사람, 1948년 2월 11일, 위스콘신 주 출생,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약학 박사. 20년 동안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신학 학과장, 지금은 피닉스 신학교 교수. 2016년 7월 28일, “왜 트럼프를 찍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발표, 가장 유명한 책은 조직신학, 칼빈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님과 함께 남성과 여성 정체성 관련, 매우 능동적으로 책을 짓고 활동하고 있다.

서문: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변호사나 기자 혹은 직업 정치인의 관점에서 쓰지 않았다.

신약학 박사, 28년 이상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경이 안내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는 인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 나는 진보가 아니라 보수적인 입장의 정부와 정치를 지지한다.

이것은 3장과 4장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종합한 결과 이런 관점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관점이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런 관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나는 미국 공화당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하면 그것을 비판한다(정부를 크게 만드는 것) 나의 주된 목적: 공화당 민주당, 보수, 진보가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설명하고 정치, 경제, 법, 정부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다.

먼저 나는 내가 책을 짓는 동안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의 관점 때문에 종종 나는 오바마와 민주당을 비판하며 그들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오바마는 말을 잘하고 정확하며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을 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나는 이것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극복하는 위대한 역사라고 믿는다. 위대한 국가

미국의 인종 문제: 대다수 흑인들은 피해 의식 좌, 진보, 민주당

그루뎀의 말: 그러나 보수적인 견해를 갖는 흑인들도 많이 있다.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국무부 장관 콘돌레사 라이스, 국방 장관 콜린 파월 등

이런 분들은 흑인들 역시 보수적인 정치관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흑인들 가운데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내가 제시하는 성경의 원리들을 살펴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나는 성경을 인생의 안내자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흥미로움을 느끼리라 믿는다. 성경은 인생의 여러 영역에서 즐거움을 주는 복된 소식이다. 나는 내가 제시하는 정치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역시 즐거움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고 믿는다. 이런 원리들을 잘 적용하면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억압당하는 사람들,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책은 즐거움을 주는 좋은 소식일 것이다.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사52:7),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원리들을 실천하면 그 나라에는 화평과 자유, 범죄의 감소,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선하고 복된 일이 넘쳐날 것이다.

성경은 미국이 생기기 1700년 전에 완성된 책이며 사실 미국 사람들의 책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 담긴 원리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든 어디든 이 책의 원리들은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안의 많은 원리들이 유용함을 발견할 것이다.

이 책을 따르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강화될 것이다.

나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개인이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 주고 싶다.

물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의 권리도 보호해 주고 싶다.

이 책은 총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1-4장이므로 독자들은 여기를 꼭 읽어야 할 것이다.

내용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들

2장: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견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역사의 사례들을 본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 없으면 정부와 사회는 급격히 악화된다.

3장: 성경이 말하는 정부, 정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정부와 시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자유, 정부와 교회의 관계

4장: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계시는가? 누구신가? 죄, 구속,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역할

5장: 법원의 역할, 특별히 미국의 사법 제도

2부인 6-15장(약 400쪽)에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6장: 생명 윤리: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7장: 결혼, 이혼, 근친상간, 동성애, 음란물, 제3의 성

8장: 가족, 학교

9장: 경제, 재산권, 자본주의, 사회주의, 국민 건강 등

10장: 환경, 성경의 가르침, 지구 자원, 지구 온난화 등

11장: 국방, 어떻게 정의로운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주의의 문제, 이슬람 테러

12장: 외교, UN, 이스라엘, 이민

13장: 언론의 자유, 미국 헌법, 미국 대학 내 증오 발언 문제, political correctness

14장: 종교의 자유, 교회 과세 문제 등

15장: 기타 문제들, 미국만의 특정 문제들, 인디언 문제 등

3부인 16-18장(약 70쪽)은 언론의 편향, 원칙들 적용, 미국의 미래 등을 다룹니다.

도입 부분 설명

교회는 정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목사는 정치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한 가지 바른 견해만 있는가?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나는 성경이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한다고 믿는다.

지금까지 미국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려는 여러 권의 책들이 나와 있다.

민주당, 공화당지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능동적으로 더 관여해야 한다. 역사적인 예들을 제시한다. 영국에도 이런 책이 있다.

단순히 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 책들도 있다.

이 책에서 나는 곧바로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를 설명할 것이다.

1. 정부가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2. 정부는 완전히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
3. 모든 정부는 악하고 마귀적이다.
4. 교회는 전도와 선교만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면 안 된다.
5.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정치만 해야 한다.

나는 이것의 대안으로 6.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견해까지 3장에 나는 정부란 무엇이며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는 무엇인지 설명한다.

4장에서 나는 세계관을 가르친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 우주, 지구,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등을 생각해야 한다.

세계관은 안경과 같다. 이것이 잘못되면 같은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

이런 것에 근거하여 나는 60여 개의 정치, 사회, 가장, 교육, 환경 문제를 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60여 개 문제에 대해 나와 100% 같은 견해를 가질까? 아니다.

나는 내가 모든 분야에서 다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을 기본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 할 수 있다.

나는 세 가지 정보를 사용해서 내 견해를 설명할 것이다.

1. 성경이 명백하게 단호하게 가르치는 것: 일부일처, 남녀의 결혼,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계획 등
2. 폭넓은 정보들을 사용해서 얻은 정보, 민주주의, 성경은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면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지 알 수 있다.
3. 세상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들, 경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세금을 낮추면 경제 성장이 오는가? 안 오는가? 등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 보 문제

그래서 나는 이 같은 세 가지 정보들에 의거하여 나의 견해를 펼쳐나갈 것이다.

물론 독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도 된다.

다만 나는 근 40년 이상 성경 연구, 학생들 가르침, 조직 신학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확신하는 견해를 제공할 뿐이다.

왜 성경과 정치 시리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교분리라는 개념에 속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타부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정교일치: 국가가 지정하는 한 가지 종교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 정교 분리; 이것 안 된다.

미국, 우리나라 다 정교분리 이미 실행하고 있다.

지난 70년간 돈 벌고 먹고 사는 데만 치중, 좌익들의 이념 교육

그러나 우익, 보수 세력은 완전 무방비, 그러다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다.

지금 온 나라가 좌익들의 관란의 도가니, 대다수 교회와 목사들 침묵,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목사들의 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상당수가 좌익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은 다 정치 이야기, 외교 이야기, 포로 가는 이야기

예레미야는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바빌론을 택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안에 산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정치

문제인 대통령 된 이후 정치 경제, 국방, 안보, 환경, 교육, 인권 등 모든 분야가 망가지고 있다.

정치인을 잘 뽑아야 내가 편안하고 아이들이 편안하다.

작은 정부를 안 하면 누가 앞으로 2-30년 뒤 공무원 연금 등 감당하는가?

지금은 민주 국가, 내가 선출한다.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을 선출해야 나와 내 아이들이 바르게 살고 동성애, 안보 국방 강화, 인권 강화, 소유권 강화

국민의 5분의 1일 그리스도인, 그런데 어떻게 좌익 정부가 생길 수 있는가?

교회의 믿음과 믿음의 실행이 따로 놓고 있다. 교육의 부재, 무지한 사람들, 속아 넘어간다.

우리가 사는 시대: 근대, 근대 시민, 자유, 재산권, 이런 원리는 100% 기독교에서 온다.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국가가 영국, 미국, 가장 잘 사는 나라(인권, 자유, 재산권, 창의력, 환경, 국방, 교육 등),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들은 자연스레 누구를 찍으라고 한다. 성경에 가치에 더 부합되는 사람을
존 맥아더 역시 트럼프, 로버트 제프리스 등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다(1948년생). 하바드 대학에서 동양 사상 전공
이런 것으로는 근대 국가 세우지 못한다. 그제 잘해야 중국, 북한 정도
이승만 대통령의 세끼 발가락, 위엔 그루템의 엄지 손가락 하나 정도 지식
김정은 찬양, 이승만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자유 국가니까 그대로 두고 있다.

4.3 정신 운운, 4.3 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이 핵심,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남로당 제주도당 골수당원
김달삼 등 350여 명이 무장을 하고 제주도 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급습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우익단체의 처결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 공포가 합해져 양 측의 대립은 급속도
로 제주도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국가가 이들을 제압하다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국가 경찰, 군인 1700여 명, 시민 10,000여 명
책임: 국가 전복 세력, 국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루템이 성경을 통해 보여 주려는 것이다.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그루템의 교과서에 따라 강해하려고 한다.

목사는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층

미국의 하바드, 예일 등 모두 목사 배출 학교

교육과 계몽

민 성경과 정치: 강제 종교 정교일치 국가 교회는 올바르지 않다
성경말씀: 마22:15-22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 그리스도인들이 취한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들

2장: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견해: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역사의 사례들을 본다.

3장: 성경이 말하는 정부, 정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정부와 시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자유, 정부와 교회의 관계

4장: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계시는가? 누구신가? 죄, 구속,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역할

1장: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정부에 대한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들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잘못된 견해들을 살펴보려 한다.

역사를 통해 여러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심어 왔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A. 정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 정부가 한 가지 종교를 시민들에게 강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요 종교'라 하겠다.

지나간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견해를 지지해 왔다.

독일의 '30년 전쟁'(1618-1648)은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영토 싸움

30년 전쟁은 명목상의 기간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나 백년 전쟁, 그리고 "80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 독립전쟁보다 짧다. 그러나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이 치러졌으며 심지어 겨울에도 전투가 벌어졌다는 점을 볼 때, 그리고 동원된 병력과 화력의 규모를 따져 볼 때는 오히려 종전의 전쟁을 압도했다. 그리고 그것은 최후 최대의 종교전쟁이면서, 최초의 근대적 '영토전쟁'이기도 했다.

이 전쟁은 서구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치열하고 복잡한 전쟁이었다.

유럽에는 종교 개혁이 진행되면서 16-17세기에 여러 차례 종교 전쟁이 있었다(구교와 신교).

16세기에는 프로테스탄트들과 루터 교회 교인들이 독일과 스위스의 아나뱃티스트 그룹들을 죽였다.

이유: 신자들의만의 교회, 개인적인 믿음을 고백한 자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이유로

아나뱃티스트: 재침례, 재세례파, 천주교의 유아 세례 반대, 믿음 고백 후 침례

그 당시 천주교 세사의 문제: 당시에는 태어난 아이가 유아세례를 통하여 교인이 되는 동시에 시민이 되었다. 즉, 유아세례는 교회와 국가를 한데 묶어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츠빙글리의 젊은 제자들은 교회개혁의 첫걸음으로 유아세례의 철폐를 꾀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자발적인 신앙고백을 한 각 개인들, 즉 믿는 자들의 자발적 모임이었다. 그들이 추구하는 교회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유아세례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는 영역교회, 혹은 국가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신자의 교회'였다.

신정정치 국가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국교화, 기독교만 믿어야 한다. 좋은 것이 아니라 타락

결국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형태를 국가 교회라고 한다(Church state).

이런 나라들에서는 오직 국가가 정해 주는 한 종교만 가져야 한다. 신정 정치 시스템

중세 천주교회: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상을 지배는 구조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생활 불가능, 이것이 근 1000년 이상 유럽 지배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 루터 교회

1534년 헨리 8세의 수장령, 영국 교회 잉글랜드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존 낙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의 신정 정치: 정치와 종교적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신의 대리는 신에게 물어 사람들에게 신의 법이나 명령을 전달하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위양(委讓)받은 자로 이 신성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승려나 신관 등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의 형태를 보인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파라오)이 신이고, 고대 바빌로니아 지방에서는 왕은 신의 대변자가 되고, 제정기의 로마에서는 황제는 신의 아들로써 예배되었다.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뱅(Jean Calvin)의 제네바 지배, 현대의 그것으로는 혁명후의 이란 정부가 있다.

신정정치 특성: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중세 천주교회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제네바에서는 칼빈에 의해서도 여러 사람이 죽음

영국 국교회도 마찬가지, 루터 교회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강요 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고 믿음의 본질 자체와도 맞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내가 알기에 현시대의 어떤 기독교 종파나 교단도 강요 종교를 주장하거나 믿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미국 건국 초기, 가장 중요한 이유 종교의 자유, 미국으로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나라를 건설해야 했다(회중 교회, 성공회, 장로 교회, 웨이커, 침례교회, 카톨릭, 유대교 등).

매사추세츠 등이 속한 뉴잉글랜드, 누가 왔는가? 영국에서 오직 영국 국교회를 다녀야만 벌금을 내지 않기에 도망친 사람들

아이러니: 그런데 청교도들은 미국에 와서 신정 정치 구현

처음에는 장로교, 천주교, 침례교, 성공회 등만 인정하려는 움직임, 침례교인들 반대: 양심의 자유
1776년 7월 4일 독립 선언, 1779년 토마스 제퍼슨 종교의 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법령 초안 마련
내용: 어느 누구도 특정 종교, 종교 행위를 강요할 수 없다. 종교 문제로 사람을 핍박하거나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

이런 것을 통해 미국 헌법에 근간을 둔 근현대 자유 민주국가,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시행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요 종교를 믿고 실행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예멘 등 이슬람 국가, 법적으로 다른 종교 불가능

클레라드라는 이슬람 작가의 말 “꾸란에 들어 있는 법들이 국가의 기본법이 된다”

현재 이슬람 과격 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집단 테러를 가하고 마을을 없애고 있다.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알제리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

이런 현상은 힌두교 밀집 지역에서도 일어난다. 1999년 인도의 구자랏 주에서는 51개 교회 등이 불에 탔다. 2007년에는 힌두교 광신자들이 12개의 교회를 불태웠다.

물론 이슬람 교도들과 힌두 교도들 중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왜 강제 종교 국가 교회는 올바르지 않는가?

1.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영역과 카이사르의 영역을 구분하셨다.

마22장: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시험

Yes or No, 예수님의 대답(20-21)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정부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카이사르의 것들: 세금, 법 준수 등,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들에 관여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하나님의 것들에 관여하면 안 된다. 교회, 예배 형태 등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두 영역에 속하는 것들의 명단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이것은 심히 중대한 선언, 그 당시 거의 모든 국가(도시)가 신정 국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보라. 신정 정치, 신정 국가

하나님이 직접 법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신다. 전 국민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국가의 법은 종교뿐만 아니라 민간 세속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된다. 십일조, 안식일, 음식 등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레21-23; 신13:6-11), 동성애자 등 죽는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것들과 카이사르의 것들을 구분하신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신다. 구약의 신정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

그래서 현대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

2. 예수님은 강제 종교를 거부하신다.

눅9:52-54,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신다. 영접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불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였다(54). 100% 믿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심(9:55)

3. 참 믿음은 강요될 수 없다.

누가복음 9장의 예: 참 믿음은 강요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은 반드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강요될 수 없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므로 어떤 정부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예수님과 열두 사도의 사역을 보라.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합리적인 논쟁을 호소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함(마11:28-30; 행28:23; 롬10:9-10; 계22:17).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들은 어떻게 되는가?(특히 출, 레, 민, 신)

백성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야 함

백성인 특정 절기에 특별 헌물을 바쳐야 함(레23)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 죽여야 함(신13:6-11) 등

이런 법규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위한 것들이다.

그 당시에도 다른 나라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끝이 나고 말았다(행15).

즉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시민법, 의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세상 왕국이 아니다.

십자가 처형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와 조우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요18:36

자신이 세우려는 왕국은 칼로 싸워 쟁취하는 세상 왕국이 아니다.

복음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우는 왕국

중요한 점: 이 말은 결코 예수님의 왕국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일3:8; 5:4-5),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루는 왕국

그러므로 세상 정부는 절대로 어떤 신앙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이라도.

5. 강제 종교 배제의 결과

a.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b.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다수가 크리스천이 되면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제정일치, 기우이다. 반드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c. 정부가 특정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불가능

여전히 국가 교회 존재: 영국의 성공회, 노르웨이 스웨덴: 루터 교회, 스페인 남미 국가: 카톨릭 독일은 카톨릭, 기독교인, 유대인들에게 소득의 8-9% 강제 조세를 하고 그 돈을 사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부가 교회를 지원하면 교회는 반드시 약화된다.

6. 강제 종교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독교회를 파괴한다.

a. 기독교 이 외의 것을 강요하면 기독교가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은 쫓겨난다.

b. 기독교만 믿으라고 강요하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참된 기독교가 소멸된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교회를 치리하게 되면 국가와 교회는 망한다.

강요 종교 결론

그러므로 강요 종교는 예수님의 신약 성경 가르침에 완전히 위배된다. 그 결과 그런 나라의 기독교는 완전히 붕괴된다.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시대의 천주교회이다.

미국 성경과 정치: 정치에서 종교 배제 주장은 전체주의 독재를 가져온다
성경말씀: 벰전2:11-20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 취하는 다섯 가지 잘못된 견해들

이중에서 우리는 먼저 정부가 강제로 특정 종교를 믿어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옳지 못하다는 것 살펴봄, 강제 종교, 강압 종교 주장, 제정 일치, 신정 정치, 국가 교회, 중세 천주교, 이슬람 등

B. 정부가 종교를 배제해야 한다.

강압 종교의 반대되는 견해는 정치나 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 종교 배제 견해 즉 정부가 하는 모든 일, 영역, 결정에서 종교적인 신념 혹은 믿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견해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 혹은 신념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라는 인권 단체 및 여러 세속 단체가 이런 견해를 지지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전교조, 민노총, 동성애 낙태 옹호, 각종 페미니스트 그룹 등 시의회 회의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 입법 절차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 반대 십계명 혹은 십자가를 모든 공공장소, 국립묘지에서 제거해야 한다.

성경 공부하는 것, 스포츠 행사 전에 기도하는 것, 졸업식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주장의 결과 미국에서는 결국 성경 공부 금지, 기도 금지, 십자가, 십계명 등 제거 미국에서는 politically correct라는 방법으로 제거

politically correct,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된다, 기독교, Happy holiday, 트럼프 동성 결혼, 낙태, 난민 이슈 등

1996년 Romer vs. Evans 판결, 콜로라도 주민들 투표 후 수정안 통과, 동성애자들에게 특별한 법적 권리를 주면 안 된다. 그 결과 동성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수정안을 내던졌다. 이유: 콜로라도 주민들이 동성애아들에게 적개심을 보였기 때문

캘리포니아 수정안 8번,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한정된다.

그런데 데이빗 보이스라는 변호사(David Boies) 항거, 비록 사람들이 진실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수정 헌법에는 다수가 자기의 종교적 믿음을 소수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 인용.

그러므로 52%가 찬성했어도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믿음을 세우려 하므로 이 수정안을 실행하면 안 된다.

즉 종교 배제 견해는 다수가 소유한 종교적 믿음이 소수의 믿음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내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밀물처럼 밀려들어올 것이다.

홍지숙 작가,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

왜 종교 배제 주장이 문제인가?

1. 이런 주장은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법의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다.

결혼은 종교 이슈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주 사람들이 결혼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 투표한 것은 종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종교라고 하면 침례교, 장로교 등, 결혼은 종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의견이 맞다고 투표한 사람들은 종교를 세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 법의 뒤에 기독교의 믿음이 들어 있다.

그런데 그런 법들은 특정 종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은 거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법들은 기독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의 노예 제도,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없앴, 성경적 믿음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하면서 기독교를 세운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실천

이런 사례는 매우 많다.

종교 배제 주장이 확산되면 낙태 문제도 직격탄을 맞는다.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믿음으로 낙태를 반대한다.

이 경우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를 세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아니다! 우리는 태아가 생명이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극도로 나가면, 간음, 도둑질, 살인 등의 반대로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

2. 종교 배제 주장은 다수 백성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

동성애 등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성경과 전통적인 기독교/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종교 배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이런 견해가 비이성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 종교이기 때문에.
즉 동성애 반대투표에서 반대를 한 사람들은 종교를 세우기 위해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과반수가 동성애를 반대해도 대법원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과반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반대를 표해도 그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종교 배제 주장은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를 종교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religion)로 대체한다.

종교 배제 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종교로부터의 자유'로 잘못 이해한다.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이야기한 종교 배제는 신정 정치, 정교일치, 강압 종교 반대하는 것
미국 같으면 1달러 돈에 In God We Trust.

이것의 의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누리려고 1776년 영국에서 독립하였
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하나님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권리들을 인간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이 미국 독립 선언문의 처음에 나타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들의 창조자로부터 아무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받았
다. 이런 권리에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확보해 주기
위해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

56명의 독립 선언문 서명자들의 주장: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될 권리를 주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승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권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권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정부 수립의 목적

그러므로 미국의 헌법은 정부에서 종교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 아니다.

강요 종교, 제정일치 종교를 반대한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4. 종교 배제 주장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종교를 믿고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법을 배제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사실 종교 배제 주장을 반대한 것이다.

종교 배제 주장을 펴면 결국 언론의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

졸업식에서 자기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따라 어떤 정책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반대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기독교 믿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창조자가 부여한 권리 공공장소에서 자기의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 사회란 시민들이 어떤 믿음에 근거했든지 상관없이 자기의 믿음을 그리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그러므로 플라톤의 이론이든, 부처의 이론이든, 공자의 이론이든, 탈무드의 가르침이든, 성경의 교리든 어떤 것에 근거해서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다만 비상식적인 태도, 비과학적인 데이터, 인신 모독 및 모욕 등은 합당하지 않다. 앞으로의 세상: 모든 것은 다 돼도 기독교의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서구 사회의 기본은 미국 헌법, 기독교 정신, 그러므로 대다수가 기독교의 믿음을 반대할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

5. 미국 사람들은 종교 배제 주의를 선택한 적이 없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택한 적이 없다.

다만 좌경화 되가는 법원이 강제로 실행하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의 인본주의화가 가장 큰 문제

미국 연방 대법원(美國聯邦大法院, 영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advice and consent)하에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대법관직을 수행하며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사실 미국의 문화와 앞날은 대법원이 결정한다. 그런데 임명권은 대통령, 그러므로 대통령 중요 오바마 때는 리버럴들, 그 결과 동성 결혼 합법화

트럼프가 되면서 다시 보수주의적 색채,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 대법원 판사 종신직, 앞으로 20-30년은 미국 사회가 보수주의로 간다.

우리나라는 헌법 재판소: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좌편향 인사 이번에 낙태 합헌 결정

6.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정부에서 사라지고 있다.

정부 관료는 하나님의 사역자(롬13:3-4)

벧전2:14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 관리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종교 배제 주의자들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 사회가 이런 방향을 나가고 있다.

사5:20-21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창3:5의 마귀 유혹, 마귀의 속삭임

7. 성경의 사례: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준 것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단4:2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렘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눅3:19)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행24:25)

예수님도 헤롯에게(눅13:32)

구약의 많은 대언자들이 왕들에게, 치리자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였다(요나서를 보라. 심지어

이방 나라 왕과 백성들에게도).

그러므로 성경은 종교 재제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8. 종교 배제 주장은 편견이다.

이것이 편견임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런 주장의 최종 목표: 100% 세속적인 정부 수립

하나님께 회개 보고해야 할 의무를 100% 제거함

정부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옳고 그른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슬람, 중국,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남미의 천주교 국가들

이것의 최종 목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제거

결국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거하려는 이런 시도의 뒤에 마귀가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간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거의 그대로 가져옴, 초대 이승만 대통령

국회 속기록 1호, 1948년 5월 31일

- 이승만 임시의장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민족을 도라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피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만방에 정시(正視)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智)와 인(仁)과 용(勇)과 모든 덕(德)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懇求)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 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날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드러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헌법을 만들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런 자유 헌법의 핵심은 행복 추구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므로 종교 배제 주장을 펴면서 헌법에 내재된 이런 권리들을 제거하려는 술수를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올바른 대통령, 국회의원 뽑아야 한다.

마 성경과 정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므로 악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말씀: 벰전2:11-20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해 다섯 가지 지적

1. 국가가 강제로 종교를 지정하는 것, 2. 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전체주의 독재 세 번째 잘못된 견해: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므로 악하다>.

다른 말: 정부의 모든 권력은 마귀의 힘에 의해 악하게 영향을 받았다.

정부나 정치 등은 모두 마귀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의 길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주의를 선호한다.

예수님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내주라고 하였으므로(마5:39) 개인 간이나 국가 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평화 방식으로 협상하고 우정을 쌓아야 한다.

1. 누가복음 4장 6절

미국 2005년 미네소타 주의 그레그 보이드(Greg Boyd) 목사의 책, <기독교 국가의 신화>(존더벤) 많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침

“모든 정부는 마귀에게서 나온다”, 누가복음 4장 5-7절

마귀의 말: 세상 모든 왕국이 자기에게 넘겨졌다(6). 예수님이 반박하지 않으심

그러므로 세상 정부는 다 마귀에게 속한다.

“따라서 기능 면에서 볼 때 사탄은 자신의 모든 왕국 정부를 다스리는 CEO 회장이다.”

2. 눅4:6을 인용할 때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요8:44), 사탄은 모든 거짓말의 아비

사실 예수님은 마귀의 잘못된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

마귀의 시험만 이기시면 된다(눅4:8).

보이드의 말을 잘 판단해야 한다.

과연 사탄의 주장이 옳은가? 아니면 마귀가 거짓말의 아비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옳은가?

더욱이 성경에는 정부에 대한 다른 말씀들이 들어 있는데 이것들은 눅4:6의 보이드 주장과 배치됨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 정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4:17

롬13:3-4

벰전2:13-14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보라. 인간 정부는 악한 것들과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악을 도모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워졌다.

사탄이 CEO 회장으로 있는 인간 정부에게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이 복종하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탄의 주장: 모든 정부는 다 나의 지배하에 있다. 악하다. 그는 우리가 그런 주장을 믿기 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비교(요일2:15-17)

3.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치셨는가?

보이드는 성경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인용한다. 이것 큰 문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공통 문제

“의로운 전쟁이 때로 필요하다는 이론을 예수님은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오직 사복음서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인간 정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창9:5-6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사기부터 역대기하

로마서13장, 베드로전서 2장

창세기 1장 28절, 반드시 질서와 정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접하면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어떤 교리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로 이런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사실 예수님은 검을 사용하라고도 하셨다(눅22:36-38)

4. 이 견해는 선한 정부나 악한 정부나 다 도덕적으로 평형 상태에 있다. 양비론

세상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

2차 세계 대전, 독일의 나치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여러 국가 멸절

이를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 연합 전선

마귀의 히틀러 독일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마귀의 영미 연합 세력 등장

히틀러 세력이나 영미 세력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같은 수준

예를 들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수많은 사람 죽임

결국 미국 정부는 테러분자들을 없애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 선포

보이드의 견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나 이들을 격퇴하려는 미국 정부는 다 마귀의 세력

그 놈이 그 놈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한국 전쟁 발발, 소련과 중국 그리고 김일성 세력과 이승만, 트루만, 연합군 세력이 도덕적으로 같다.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자유와 번영, 이것이 나쁘다는 말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의로운 가치를 들고 적들을 쳐부수는 세력이 있다(연약함,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견해: 인간 정부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다(롬13:4).

보이드의 견해를 따르면 9.11 테러를 일으킨 자들이나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군인/경

찰이나 차이가 없다.

5. 보이드는 결국 정부가 공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적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한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누르고 다스리는 체계이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스트, 전체주의 정부 등 세상 왕국들의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다.”

보이드는 이것을 검으로 누르는 파워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 검으로 누르는 파워는 위협으로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기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보이드는 검으로 누르는 파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롬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워를 사용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귀에게 모든 왕국이 넘어갔으므로 하나님 수준의 전 우주적인 초월적인 치리자가 있어야만 가장 최상의 그런 파워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초월적 존재가 없으므로 결국 세상의 이런 파워는 잘못된 것이다.

6. 그래서 보이드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아내나 아이들 혹은 다른 자기를 위해서도 싸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보이드는 정부가 권력을 사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전적으로 동화된 그리스도인은 자기나 자기 식구들을 위협하는 공격자에게도 절대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군대에서 전투를 하면 안 된다.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으므로

대표적인 집단: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성(善性)을 믿었고 산상수훈을 '완전을 향한 인간진보의 이정표'로 신봉했다. 그는 기독교(카톨릭, 개신교, 정교회)가 제도화 정치화 되면서 자신의 본질적 사명인 사랑의 법을 배반해왔다고 비판했다. 톨스토이의 무정부주의는 '모든 강압에 대한 철저한 거부'에 근거했다. 평화 역사가인 브록 (Peter Brock)은 톨스토이의 무정부주의와 평화주의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가는 사람의 대적이다. 다른 무정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력과 동의위에 사회가 이뤄지길 원했다. 전쟁이란 인간을 가장 참혹하게 만드는 무력행사이므로 전쟁 반대는 톨스토이의 실천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함석헌의 무저항 평화주의: 톨스토이, 그 사상이 산상수훈의 사랑의 법을 그대로 따르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란 적일지라도 그를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그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톨스토이의 입장과 유사하다.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드는 그리스도인이 전투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이드는 악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적인 평화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성경의 가르침: 악을 제어하려면 복음 전도 선교와 정부의 힘 둘 다 필요하다.

보이드의 문제: 전도/선교의 사명과 정부의 사명을 분간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결코 무력이나 정부의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선교하고 전도한다(롬10:17).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정부의 힘으로 악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다(롬13장).

웨인 그루뎀: 비상 상태에서 정부의 힘이 그 자리에 없거나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가 이루어졌으면 나는 희생자를 사랑하므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것이다.

강도가 들어서 아내나 아이들을 위협하는 경우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을 동원하여 강도를 물리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심지어 총을 사용한다.

이런 위험한 시점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느4:14, 창14:14-16).

세상의 악을 제어하는 데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복음과 정부

그런데 이 중 한 가지만을 취한 뒤 그것만이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성경 모순이 생긴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보이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마5:39). 뺄

사실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 백성이 지킬 일이다. 또한 이것은 개개인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정부라는 하나님의 기관이 공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함을 보여 준다. 수많은 곳에서. 롬13:3-4를 보기 바란다.

개인과 국가에게 주어지는 명령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

8. 평화주의 정책이 노예 제도를 막았는가, 히틀러의 독재를 막았는가?

미국의 노예 제도는 남북 전쟁으로 해결됨, 수많은 사람 죽음, 노예 제도 폐지

히틀러 체제, 2차 세계대전으로 해결됨, 수많은 사람 죽음, 인류의 화평, 자유, 번영
보이드에게 어떤 사람들이 묻는다.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지 않았는가?

보이드의 답: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했으면 노예 제도나 나치 독일 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다른 빵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런 대답의 문제: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죄성 부인, 결국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내 주장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이다. 역사는 인간의 죄를 보여 준다. 어떤 악한 일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제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영화 '설리 : 허드슨강의 기적'은 2009년 탑승객 155명 전원이 생존한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작품이다. 2009년 155명을 태운 US에어웨이스 1549편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기장 설리와 부기장 제프는 안전 비행을 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새폐와 충돌하게 되고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난다. 전원 구조, 조사위원회에서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그를 압박한다.

공항으로 되돌아가 정상 착륙시킬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시뮬레이션(컴퓨터 모의실험) 결과 때문이었다. 영웅으로 칭송받던 기장이 실은 판단 미스로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부기장은 "비행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 있는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다고요!"라고 항변한다. 시뮬레이션은 사후에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사고 당시 기장이 숙지하고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 실제 상황에서는 공항 회항이라는 판단이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다시 내려지고 기장의 명예는 회복된다.

세월호 참사 5개월 후 '해경이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점에 50도로 기울어져 있던 배 안에서 9분 28초면 승객 전원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법정에 제출됐다. 해경이 배 밖으로 나온 승객들만 구하느라 배 안 승객들을 희생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현장에 첫 도착한 해경 123정은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급속하게 기울어가는 세월호 주변을 오가며 배 밖으로 나오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기 바빴다. 그러는 사이 배가 완전히 물속에 잠긴 10시 17분까지 골든 타임 47분이 흘러갔다. '9분 28초면 모두 탈출시킬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은 해경과 승객이 약속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이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의 머리와 몸이 컴퓨터 모의실험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 해경이 완벽한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 그러나 해경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4127.html

9. 이런 견해의 악한 영향

보이드의 견해는 사실을 심히 왜곡한 것이다.

그는 복음 선포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단순하게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 뒤에 마귀가 있다.

이것을 따르면 정부가 악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힘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게 만든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부의 힘을 사용해서 악한 자들을 처리하는 예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

창9:5-6,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의 의로운 재판관들, 열왕기상하의 의로운 왕들(왕상을 보라, 솔로몬이 아도니야, 요압, 아비아달 제거)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 정확히 벤전2:14를 보라.

10. 보이드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정부는 다 악하고 우리는 모든 일을 평화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등

그러면 강력한 군사력으로 악한 국가/사람을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계속 말로만 협상한다. 2차 세계대전 영국의 챔벌린 수상, 히틀러의 평화 공세에 말려 1938년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차지하게 함, 물론 허사가 되었다.

이런 견해를 따르면 세상에 악이 점점 더 무성해진다.

이슬람 세력, 공산주의(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를 어떻게 막는가?

개인들 문제의 경우, 경찰이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으면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전도서 구절

공권력이 강한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보이드의 주장으로 가장 크게 유익을 얻는 존재는 누구인가? 사탄과 그의 세력들

마귀는 선으로 악을 제억하는 것을 심히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 무질서와 혼돈, 범죄의 증가

성경은 분명하게 정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악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한다(롬13:4).

마 성경과 정치: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말씀: 벰전2:11-20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해 다섯 가지 지적

1. 국가가 강제로 종교를 지정하는 것, 2. 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전체주의 독재
3. 세상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므로 악하다. 평화주의 실천

네 번째 잘못된 견해: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많은 교회들의 주장: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만 전하고 정치는 거론하지 말라’ 견해

핵심: 교회는 복음만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정치/정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된다.

개인 대화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복음주의 저자들도 있는가? 칼 토마스나 존 맥아더 등은 이런 견해에 가까운 것을 전한다.

칼 토마스: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부패하지 않게 지키려 해도 인간 구속의 수단으로 정치에 집중하는 목사들은 본인들의 소명과 메시지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인간 구속의 길은 워싱턴을 통과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은 심지어 워싱턴의 유혹에서 본인들조차 지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다.

존 맥아더: <왜 정부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는가?>

눈에 띄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지지하는 것은 종종 선한 일이다.

정부와 사회의 현 시류를 건강하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은 수용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가 정치/정부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복음 선포와 가르침의 우선권을 빼앗아가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의는 구원과 성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회 및 정부의 개혁을 통해 옛 창조물을 도덕적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새 창조물을 복음의 구원하는 능력,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1.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 토마스나 존 맥아더의 여러 견해에 동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그들이 비난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 편협하게 이해한 결과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신뢰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고 성화하여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이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고 기초이다.

복음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다.

마28:19-20

20절의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는 요3:16만 있는 것이 아니다.

4복음서에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요14:26; 16:13)

예수님의 명령들은 그분의 사도들을 통해서 왔다(벰후3:2).

바울(고전14:37),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예수님의 명령이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구약에 의존하여 말씀을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에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는 인간 정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 역시 하나님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활동이 영적인 선을 이루는가? 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므로
요일5:3,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영적인 일

따라서 정부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톰 미너리(Tom Minnery), 예수님의 행적 연구

예수님은 죄들만 용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질병도 고쳐 주셨다.

즉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고쳐 주셨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선한 일이었다.

그래서 미네리는 이 원리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모든 사회 활동에 적용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 선포와 가르침, 선한 일과 병자 고침,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한 사회 활동은 복음의 뒤를 따르기도 하고 많은 경우 다리 역할을 하면서 먼저 나아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파, 교육 사업, 의료 사업, 구제 사업

그래서 나(웨인 그루렘)는 정부에 관한 맥아더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복음만 전해야 한다는 사람들: 이상적인 인간 정부라 해도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킬 수 없다.

또한 가장 악한 정부라도 성령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을 막을 수 없다.

이제 나(웨인 그루렘)는 남함과 북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독재 권력인 북한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파급을 완전히 중지시키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단 한 명의 선교사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성장하여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정부의 압제에 의해 자라지 못하는 쿠바의 교회와 자유가 있어서 성장하는 남미의 많은 교회들을 비교해
보라. 그 나라들은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결론: 정부는 하나님의 왕국의 일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딤후2:1-2를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대표 기도 시간에 구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좋은 정부는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복음 사업에 도움, 나쁜 정부는 반대
정부는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전도할 수 있게도 하고 법으로 이 모든 것을 규제하기도 한다(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공산 국가).

어떤 정부는 살인, 강간, 강도질 방지, 다른 정부는 인간의 삶을 파괴

어떤 정부 결혼, 동성에 찬성, 반대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 온전한 복음은 사회 변화를 포함한다.

온전한 복음은 사회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래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죄들의 용서는 놀라운 일이고 복음의 핵심, 기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들의 용서 선포,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사람들의 마음 변화
그런데 복음은 죄들의 용서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내는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신다.

요일3:8을 보라,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

변화된 삶, 변화된 가정, 이웃, 학교, 사회, 그러면 변화된 정부,, 당연하다.

성경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포함하나? 사업, 아이들 교육

그러면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위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야 한다.

복음만 전하는 건해는 왜 잘못 되었는가?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비물리적인 것, 저 세상의 일).

그런가? 솔로몬의 잠언을 보라(잠6:6), 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는가?

우리가 처해 있는 물리적 공간, 질서에는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있다.

여기서 잘못 나아가면 플라톤의 이원론이 되고 만다. 영지주의가 되고 만다.

3. 교회가 가르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성경에 있는가?

복음만 전해야 한다고 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테르, 욥기, 잠언, 시편, 대언서, 계시록, 야고보서 등

이사야와 예레미야, 다니엘(대언자들) 등의 정치가가 왕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배제해야 하는가?

4.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 놓으신 목적은 두 가지이다: 복음 선포, 선한 행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놓으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죄들의 용서, 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인가? 이것만이 유일한 이유인가?

오직 복음 선포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명령(마22:39),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산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마22:39)

이 말은 곧 사회의 전반에서 내 이웃들의 복과 유익을 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려면 좋은 법들을 세워야 한다. 거기에 관여해야 한다.

결혼, 낙태, 안락사, 에이즈, 동성애, 자연 환경 등, 이것이 다 이웃 사랑

아이들 보호법, 음란물 관련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하려고

갈6:10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부가 좋은 법을 만드는 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엡2:10)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마5:16).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병원, 학교, 회사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아니면 정부에도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정부이다. 그러므로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와 좋은 법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크게 사랑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은 악을 저지하기 위해 교회와 정부 두 기관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범한다.

악을 저지하는 방법 중 하나, 예수님을 믿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 마음이 변하면 악을 저지할 수 있다(고후

5:17). 그런데 이것이 악을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사용해서 악을 저지하신다. 실제로 가장 큰 악은 정부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그 이유: 세상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을 보자.

“우리는 음주 운전 처벌법이 필요치 않아. 복음만 들어가면 사회는 변화될 수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음주 운전하지 않는 모범만 보인다면, 이 사회에서 우리는 음주 운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시대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도 음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재림 전에는 복음이나 양심이나 상식에 의해 음주 운전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부의 막강한 힘을 사용하여 음주 운전을 막고 계신다.

롬13:3을 보라(벧전2:14).

음주 운전을 막는 주된 힘은 복음이 아니라 정부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헌법 개정이 되면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는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다.

6.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통해 정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역사가 엘빈 슈미트는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의 성장으로 인해 유아 살해, 유아 유기, 낙태(AD 374년)

등이 불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글래디에이터 죽이는 것,

영국의 경우 윌리엄 월버포스 노예 무역 금지 법(1840년)

영국의 권리 장전(1215)

미국 독립(1776), 미국 헌법(1787)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지 정치나 정부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옳지 못함을 증명할 수 있다.

7. 우리를 핍박을 당해야 하지 않는가?

재림 전에는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당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적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감을 인정해야 한다(마24:9-12; 21-22; 딤후3:1-5 등)

답: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마24:36; 25:13).

우리가 아는 것: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린다(행20:27), 선한 행위를 한다(엡 2:10),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마22:39). 그러므로 우리는 휴거받기 전까지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18, 19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이 온다고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지금의 자유 민주주의 불가능 우리는 이런 속명론을 피해야 한다.

8. 정치와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복음 선포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은가?

무슨 말인지 알겠다. 복음에 전력투구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기에 신경을 쓰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사실 바른 질문이 아니다.

바른 질문: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 하나인가, 아닌가?”

하나라면 그 일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런 데 써야 할 자원과 에너지를 몽땅 복음 선포에만 쓰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가 다 다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선물이 존재한다(고전12:4).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교사, 찬양대, 목사, 심방, 기도, 음향

김영익 형제는 온종일 음향에만 관심, 하나님의 일과 무관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미국 같으면 빌리 그램 복음 전파, 제임스 돕슨 라디오 사역, 어떤 사람은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한다(행20:27).

교회 안에는 정치, 사업, 교육, 결혼, 가정 등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롬14:10-13, 판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다섯 번째 잘못된 견해: 교회는 정치만 해야 한다.

마 성경과 정치: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성경말씀: 뵤전2:11-20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해 다섯 가지 지적

1. 국가가 강제로 종교를 지정하는 것, 2. 정부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전체주의 독재
3. 세상의 모든 정부는 마귀의 것이므로 악하다. 평화주의 실천, 4.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회 정치 문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포함

다섯 번째 잘못된 견해: 교회는 정치만 해야 한다. 당연히 잘못된 견해

오늘부터 2장: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하나님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성경에 드러난 정부의 목적에 맞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보장

폭력으로, 증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설득하는 자세로, 친절하게, 또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1.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누가 과연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올바른 해석임을 누가 결정하는가?

웨인 그루템의 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지 않다. 성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 믿음과 합당한 해석 방법에 관한 한 책임 있는 복음주의 해석자들 가운데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러하였다.

성경 전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해석자들 가운데, 성경에 따라 살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죄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출12:13), 간음(20:14), 도둑질(15), 거짓 증언(16).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악을 저지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간 정부를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롬13:1-6; 뵤전2:13-4; 창9:5-6).

또한 교회가 주관해야 할 것들과 정부가 주관해야 할 것들이 다르다는 것에도 대개 동의한다(마22:21).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 들 수 있지만 이것들만으로도 한 사람의 성경과 정치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들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정의로운 전쟁 이론, 사형제도 집행, 가난과 부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등

그러나 이런 분야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근거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거든 저거든 한 가지가 설득력 있게 나타나면 목사들, 교회 리더들이 그 견해를 수용하게 되고 반대 견해는 소수의 견해로 남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 1970년에 낙태와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들을 사용하여 근거를 댈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성경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요지가 성경에서 나옴을 보이려 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책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양쪽 견해를 다 들어보고 중요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왜곡

먼저 조심할 점을 말하고 싶다. 성경에 대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져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인간의 기록, 많은 오류가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자기들 생각에 오류로 보이는 구절들을

나열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문맥에서 벗어난 것들이다.

영국의 A.N. 윌슨은 남침례교도들을 비판하는 글을 뉴욕 타임즈에 적었다.

1. 이들은 노예 제도를 용인하는가?(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그렇게 한다).
2. 사도행전 초기에 나오듯 이들은 모든 소유를 공유하는가?
3. 이자 받는 것을 정죄하는가? 그런데 어떻게 정기 예금, 주식 등을 하는가?
4.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들을 지키는가?
5. 간음하면 돌을 던져 죽이는가?
6.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

웨인 그루템의 말: 나는 30년 이상 성경 윤리에 대해 가르쳐 왔다.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 중 하나를 가르치지 않는다.

누구라도 어떤 문서에 대해 문맥에 벗어나서 이런 주장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따라야 한다.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잘 보아야 한다.

윌슨의 해석 목적: 성경은 옳지 않으므로 따르지 말라, 문제: 그러나 그의 해석은 하나도 옳지 않다.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모든 역역에 성경의 원리들을 적용하여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

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그들은 알고 있다.

누구나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이런 원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정부의 가르침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르면 많은 유익이 있다고 믿는다.

C.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강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 근거

1. 구약 성경의 근거

다니엘은 그 당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단4:27).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대언자다. 바빌론 왕국에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 원하는 도덕적 기준을 부과하고 싶지 않다. 가서 당신의 마술사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당신들 전통에 따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라.”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말하였다.

죄와 불법들을 지적하고 끊어 버리라고 하였다.

당시 그는 고위직에 있었다(단2:48; 49 등).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담대히 말하였다(4:27).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말하였을 것이다.

다니엘은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성도 중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조언한다(렘29:7).

이런 나라에 선한 것을 가져오려면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 도시가 번영하려면 정부의 법과 정책이 좋아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도시가 흥하게 된다.

요셉은 이집트에 거하면서 파라오의 결정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후에 모세는 이집트 왕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쳤다(출8:1)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드는 시종

모르드개 역시 페르시아 아하수제로 왕 다음 가는 자(에10:3; 9:4)

왕비 에스더도 아하수제로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들은 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그분의 법을 알려주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이방 나라들의 심각한 죄에 대해 언급하며 회개를 촉구한다(사13-23; 렘46-51;

겔25-32; 암1-2, 오바다(에돔), 요나(니느웨), 나훔(니느웨).)

중요한 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은 없다.

모두가 그분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에 드러난 윤리 도덕은 시대를 초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결혼, 가족, 학교, 정부, 정부의 직무 수행자들

2. 신약 시대

침례자 요한, 그 당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통치,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침례자 요한의 책망(마14:3-4), 눅3:18-20은 조금 더 자세히

침례자 요한은 그의 모든 악행을 책망하였다(누가복음 참조).

그의 행위는 의롭고 거룩하였다(막6:2). 그는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순교함
사도 바울과 벨릭스 총독을 보라(행24:24-25).

그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공적 결정 사항들도 이야기하였을 것이다. 사적 악행들도
이 외에도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정부에 영향을 미쳤다.

시편과 잠언에는 악한 치리자와 선한 치리자에 대한 예들이 나온다.

이런 예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3.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

왜 하나님은 이런 구절들을 성경에 넣으셨을까?

1.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지 알게 하시려고

2. 정부의 관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3.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칙들을 정부 관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4.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성경의 원리들을 알아야 한다.

이전의 왕정 시대와는 달리 민주정에서는 정부의 통치 권력이 백성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부를 선택할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도덕적 법적 기준들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부와 정책에 대해 가르쳐야 가능하다.

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사회주의, 낙태, 동성애, 전쟁, 이슬람 등)에 대해
목사가 어느 정도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지는 목사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바르게 투표해야 합니다” 수준 이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과연 교회 말고 누가 이런 정체적 이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처럼 중요한 이슈에 대해 목사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을 성경적 원리들에 따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하고는 성경적 원리들을 안 가르치면 되겠는가?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 윤리에 맞게 해야 합니다. ,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

목사의 책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 특별히 정부가 지대한 역할을 하므로 목사는 정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이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마 성경과 정치: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행20:19-27

지난 주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막중한 책임

정부를 잘못 만들면 교회가 파괴되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진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북한을 보라

세상 정부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교회와 정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정교일치 강압 종교, 중세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가 강한 나라들 해방신학 등으로 붕괴되고 있다.

영국의 1215년 마그나 카르타(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고 인용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서로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되었다.) 1776년 미국의 독립 선언문

특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 자유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

크리스천은 정부에 선한 영향력,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가? 바르게 대답하려면 기독교 국가의 정의 필요, 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

1. 기독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종교 시스템인가? 그렇다.
2. 건국의 아버지들의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성경을 믿은 사람들인가? 그렇다.
3. 현재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인가? 그렇다.
4. 기독교의 믿음 지금도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에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다.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자유, 열심히 일하기, 강한 국방, 병역자 배려, 자선, 다른 국가들 원조, 법치주의 등
5. 1892년에 대법원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밝힌 적이 있다.
6. 현재 미국민의 다수가 성경대로 믿는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다. 약 20%, 2005년도 갤럽 조사, 22%만 복음주의 기독교인, 이것은 천주교 제외, 보수적인 천주교인들 중에도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들 있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
7. 현재 미국 정부와 미디어 대학 등은 기독교 가치를 인정하는가? 아니다.
8. 미국 정부는 기독교를 미국 국가 종교로 권장하는가? 아니다.
9. 시민이 되려면 기독교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의 골격은 99% 미국 헌법, 따라서 기독교 정신

구약 시대 율법은 무엇인가?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재건주의(christian reconstructionism)

구약 시대 신정 정치 비슷한 것, 혹은 점령/지배 신학(Dominion theoploy)

구약 시대 율법은 현시대 민족들의 시민법에 대한 양식이다.

신성모독, 간음, 동성애 등에 대해서는 사형을 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 구약 시대 율법의 위치를 잘 모른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무시(마 22:21)

어떤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 재건주의를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맞지 않는다.

현시대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없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선한 영향력,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웨이인 그루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미 카터, 조지아주 주일 학교 교사, 남침례교인, 미디어는 그를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 선전, 우리나라도

그런데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카터가 아니라 레이건을 뽑았다. 그 이유: 카터의 정책보다 더 좋았다(국가 국방, 경제 정책 등). 레이건도 믿음을 고백했지만 카터처럼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미국 최대 강국, 소련 무너뜨림 카터는 최악의 대통령(김일성 동무), 기독교인이라고 다 뽑으라는 말이 아니다.

2007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웨이 그루뎀은 밌 롬니 지지, 그는 몰몬교 신자 그루뎀의 말: 다른 어떤 후보보다 롬니의 국방, 경제 정책이 좋았다.

그 당시에는 남침례교 출신의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 복음주의 침례교 목사(트럼프 대변인, 새라 허커비)

그보다도 롬니의 정책이 더 좋았다.

롬니의 신학적 믿음과는 달랐지만 그의 경제 국방 등 정책에는 동의하였다.

웨이 그루뎀의 말: 나는 신학적으로 롬니의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에 배치하는 믿음이다. 그러나 몰몬 교도들의 도덕 윤리 기준은 기독교인들과 비슷하다. 그런데 롬니의 정책들은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동성애, 낙태 반대, 생명 존중, 강려간 국방 등

기독교인이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몰몬이라도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루뎀의 말: 그렇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리버럴들의 주장을 뒤엎을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몰몬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보수적인 유대교인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즉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을 믿고 지키려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다. 실제로 나는 애리조나 중에 살면서 몇 년 전에 몰몬 교도인 맷 샬몬을 주지사 후보로 투표했다.

그는 졌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주적인 사람으로 알려 있지만 낙태 반대 법이 올라오자 반대하였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후보에게만 표를 주어야 하는가? 아니다.

성경을 보라. 정부 관료가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많았다.

요셉 당시의 파라오, 요셉을 들어서 기근을 면하게 함

페르시아의 고레스, 유다 귀환

페르시아의 다리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지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비 에스더, 모르드개

신약 시대의 팍스 로마나, 기독교 복음 전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대다수 기독교인,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아니다.

제퍼슨은 3대 대통령: 헌법 6조, 공무원이 되는 데 있어서 종교적 믿음 시험을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는가? 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딤후2:2)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롬13:4).

롬니는 보수적인 견해를 지닌 좋은 사람이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를 배척하였다.

그 결과가 오바마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8년 동안 동성 결혼 합법화 등 윤리와 도적 실종, 이슬람 심지어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더 리버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야 정신 차리고 트럼프 선출, 힐러리도 감리교인, 그러나 보수주의자를 원함 보수적인 대법관 선출, 경제 정책, 산업 발전, 초강국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도자의 선출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 대통령 어록, 5.16 혁명 58주년, 그는 기독교인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주의자 한 나라의 주권과 그 국민의 인권은 빈곤의 탈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 민주 모두 다 좋은 말이요. 그러나 참다운 인권과 민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에서 나옵니다. 당장 배고파 죽어가는 국민들 앞에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이나 민주는 경제가 해결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두고 보시오. 모든 결실은 나보다 오래 사는 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땀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의 노력의 대가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하고, 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우리 언론에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금시 국민을 호강시켜 줄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루 잘 먹고 아흐레 굶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 여러분들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혈투는 데에는 입을 모으면서 밝은 면을 넓히려는 생산적인 노력에는 힘을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을 두려워할 뿐 그 먹구름 뒤에 숨은 태양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정부는 명확한 도덕적 잣대를 잃게 된다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절대적인 가치들이 무너진다.

1. 동성애, 동성 결혼
2. 낙태,
3. 포르노,
4. 가난(정부의 정책),
5. 환경,
6. 사형 제도
7. 교육,
8. 유리 도덕 기준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은 올바른 견해를 발표하고 지지해야 한다.

교회와 목사가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낼 것인가? 이슬람, 동성애자들, 페미니스트들, 사회주의/공산주의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만 민주주의 국가의 도덕 경제 국방 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 이 안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올바른 것들을 없으려고 웅크리고 있다.

요일5:19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악한 세력이 정부를 뒤흔들 것이다.

목사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 있다

목사의 책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정치 목사라는 말을 듣지 않겠는가? 교회에는 공화당원도 있고 민주당원도 있다.

웨인 그루뎀: 1. 목사의 책무는 참으로 어렵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실제 정치 참여, 글쓰기, 그냥 교회에서 노래하기, 교사 등,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많다. 은사도 많다.

2. 그런데 목사는 정부와 법 그리고 정체 대해 일정 부분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유: 이것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한다.

나는 이것이 논쟁거리임을 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논쟁거리라고 해서 목사가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

교회 역시 논쟁거리라고 해서 이를 고수하는 것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사회주의

의 사도 바울을 보라. 쉬운 주제만 다루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가르쳤는지에 대해 회계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행 20:19-27).

바울이 두려워서 간음,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서 그곳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경우 그는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밝혔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올바른 정부와 법에 대한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잘 설명하고 바르게 판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의할까?”를 묻지 말고 “성경 말씀이 확실히 이것을 지지하는가?”

또한 목사가 매일 정치 이야기만 하년 안 된다. 적당한 때때 필요한 때에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1. 바른 정보를 잘 듣고 모으고 투표해야 한다. 정보의 부재, 선동에 휘말린다.
일단 좌익의 말이라고 하면 안 믿어야 한다. 마귀의 특징: 거짓말쟁이
웨인 그루템의 말: 이를 위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라.
2. 투표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우리의 자유,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다.
우리도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결론

여러 이유들로 인해 목사들은 국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 개인은 바른 정보를 모으고 바르게 투표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야 한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맘 성경과 정치: 정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다
성경말씀: 창9:4-6

이 책은 총 620쪽으로 되어 있다.

1부인 1-5장(약 150쪽)은 정치와 정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견해 다섯 가지 지적

2장에서는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난 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하는가? 아니다. 성경의 가치에 더 부합되는 사람을 뽑으면 된다.

3장 성경이 말하는 인간 정부

현시대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의논하기에 앞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인간 정부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 살펴보려고 한다.

정부의 기원, 정부의 목적, 어떻게 정부를 택할 것인가? 어떤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인가? 정부 치리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한계,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보여 줄 것이다.

A.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해야 한다.

1. 구약 성경의 기초

a. 창세기 9장 4-6절

인간 역사 초반에 정부가 나온다. 노아의 홍수 이후, 약 4300년 전

살인에 대해 피를 요구할 것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실행할 것을 말씀하신다.

창9:5-6에서 하나님은 살인죄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피로 갚아야 한다고 하신다.

여기에는 인간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흉악한 범죄인 살인에 대해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임무를 주신다.

이런 원칙이 확립되면 작은 범죄에는 작은 형벌이 주어짐이 확립된다.

정부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집행할 권리가 있으면 작은 범죄들도 처리할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법률 체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출애굽기, 신명기).

이러한 규정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 훨씬 전에 주어졌다. 약 8-900년 전

그리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 땅에 사람이 다시 충만히 채우는 시점에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단지 구약 시대에만 혹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적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

즉 이 규정은 노아 홍수 이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규정이다.

b. 무정부 상태는 심각한 재앙이다.

구약에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있다.

즉 정부가 약하거나 없으면 많은 재앙이 발생한다.

사사기 18-25장을 보면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악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정부가 없을 때 엄청난 악이 발생한다(삿17:6; 18:1; 19:1; 21:25).

죄인들을 통제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한다. 죄인들이 마음대로 행한다.

c. 정부는 정의를 집행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에 따른 정의를 집행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왕이 정의를 집행하면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어야 한다.

시82:1-4를 보라

(1) 치리자는 정당하게 공의롭게 다스려야 한다. 편견 안 됨

(2) 약한 자들 고아들을 보호해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자들 보호

(3)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한다.

d. 범죄를 줄이려면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전8:11).

2. 신약성경

a. 롬13:1-7

(1)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신다(1-2). 예수님의 말씀(요19:11)

(2) 치리자들은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3). 창9:5-6과 일치함

(3) 선한 자들을 격려한다(3). 치리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잘못된 자 형벌, 잘한 자 보상

정부는 세금으로 공원, 놀이시설, 운동장: 소풍, 운동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유, 사회를 위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법적 특혜나 경제적 이득을 주면서 결혼 장려,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4) 정부 관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4, 6). 하나님의 사역자

관리들이 악을 행하는 자 형벌, 선을 행하는 자 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구절들은 정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 준다.

치리자 개인이나 정부가 악을 행할 수 있지만 정부의 설립 자체는 원래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5) 관리들은 일을 수행하면서 선을 행한다(4). 즉 정부가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정부나 치리자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은 아니다.

악한 자들도 많다(눅3:19의 헤롯). 단4:27의 느부갓네살의 죄들

열왕기를 보면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한 왕들의 이야기가 많다(왕상11:6 등).

그러므로 정부의 치리자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바르게 공정하게 행하면 그들은 선을 행한다.

(6) 정부의 권세 가진 자들은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4).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않는다.

인간 정부의 목적: (1) 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 (2)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것(이것은 실제 형벌을 말한다).

이것을 바로 위의 12장 19절과 비교해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원수 갚지는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13:4가 나온다. 이 경우 정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즉 이것이 정부의 기능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런 경우 정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b. 벰전2:13-14

베드로도 비슷한 생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 인간 정부에 복종하라는 것은 곧 정부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임을 보여

준다.

베드로 역시 정부는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도모해야 함을 말한다.

c. 마5:39의 다른 뺨을 내주는 것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부가 악한 자들에게 형벌 주는 것에 반대한다.

정부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들을 고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즉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문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마5:39를 인용한다.

이 말씀이 정부가 형벌 주는 것을 반하는가? 아니다.

문맥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개개인의 행동에 대해 말한다.

특히 이 구절은 하늘의 왕국의 백성에 대한 것이다. 즉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마5:42를 보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면 거지가 자꾸 자꾸 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붕괴시킬 것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함을 보여 주는 말씀이 있다(눅16:10, 마 25:14-30의 달란트 비유도).

그러므로 마5:39를 이용해서 정부의 역할을 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d. 죄 없는 세상에도 정부가 필요하다.

죄 때문에만 정부가 존재하는가? 아니다. 악이 존재하지 않아도 정부 체계가 필요하다. 즉 사회의 공통 선을 위해 필요하다. 도로, 다리, 표준 규격(무게, 길이 등), 공공 기록 보존, 전기 공급 (110V, 220V), 돈, 이런 것들은 공공의 선 도모

B.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있는 율법들은 ?

정부는 선을 도모하고 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

그러면 정부가 바르게 기능을 하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들을 다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답은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에 주신 규칙들이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안의 법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이것은 보통 모세 언약에 속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었다.

(1)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2)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출19:6).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국가

(3) 보편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들이 역사에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노아의 대홍수(창6-9), 소돔과 고모라(창19), 가나안 정복 전쟁: 특별한 사건들이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미리 보여 준 사례들, 그러나 오늘날의 정부가 집행해야 할 표준이 아니다.

(4) 여러 종류의 사형제도: 살인, 거짓 신앙 전파(출22:18, 20), 부모에게 반항(신21:18-21), 동성애, 수간 같은 성적인 죄(레20:10-14), 이런 것들은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에게 부과된 것이다. 즉 신정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부과되지 않았다.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

(5) 결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정들을 통해 정부의 목적과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그 안의 원리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의 부패, 그들의 법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공의, 정의, 정당성 등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이 가면서 사회 제도도 발전하며 변한다. 신4:8을 보라.

구약에는 율법서 말고 시편과 잠언 그리고 전도서 등에 왕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 있다.

잠언에는 32구절, 시편과 전도서에도 여러 구절, 이런 구절들은 정부에 대해 지혜를 알려준다.

그러면 안식일 규정은 어떻게 하는가?(출20:8-10)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주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제도들 역시 지금 이 시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골2:16-17, 갈4:10-11

그러므로 정부가 주일에 문을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7일 내내 일해야 하는가? 아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지켜야 한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은 사람을 위해 필요하다. 대개는 주일, 목사들은 대개 월요일

미국의 경우 Chick Fil A와 Hobby Lobby는 문을 닫는다. 그들의 자유

그러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롬14:5-6).

며 성경과 정치: 폭정에 항거하여 정부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성경말씀: 창9:4-6

웨인 그루렘 책 1부의 3장, 정부는 무엇인가?

지난주: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 정부 등장, 악 저지, 선 도모, 가장 중요한 것 질서 유지, 무정부 상태가 되면 피비린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약시대 율법들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다.

세계 모든 나라 인간 정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회계보고

구약성경의 예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여러 나라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 주권자의 의미: 불신 국가 민족들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회계 보고 필요(사13-23, 렘46-51, 겔25-32; 암1-2, 오바다, 요나, 나훔, 함2, 습2 등)

여러 구절: 하나님은 정부 치리자들을 세우신다.

모세에게 하신 말(출9:16)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의 등장 150년 전에 예언(사44:28-45:1)

시75:6-7

다니엘서 2:21; 4:25 등)

인간 정부는 치리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며 국민들의 선을 구해야 한다

롬13:4,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종(사역자), 치리자가 아니라 국민의 선과 복지 위해 존재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을 보라(삼상12:3-4).

그러나 왕은 자기를 위해 통치할 것이다(삼상8:11-17).

왕의 권력을 자기, 가족, 친구를 위해 쓰면 안 된다. 이런 일은 성경의 정죄(신16:19; 시26:10; 잠15:27; 17:23; 사33:15; 겔22:12; 암5:12; 함1:2-4).

정부 혹은 왕 혹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 그러면 국민 무시, 하나님의 계획 파괴

예; 가봉의 오마르 봉고, 41년 집권, 2009년 사망,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 “봉고는 가봉의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로 생각함, 부정부패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음, 파리와 니스에 33개의 사유 재산, 뉴욕 1억 3천 팔백만 달러 저축,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마 10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규제받지 않는 정부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5월 29일, 사법 농단 1차 공판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묻자 “모든 것은 근거가 없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오후에는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 24분 동안 검찰을 향해 날선 말들을 쏟아냈다.

“무려 80명 넘는 검사를 동원해 8개월 넘는 수사를 한 끝에 300페이지가 넘는 공소장을 (검찰이) 창작했다. 저는 법관 생활을 42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모든 것을 왜곡하고, 건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을 비유하는 한자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줄거리를 만들어내다가 마지막 결론에선 재판거래는 온데간데없고 겨우 휘하 심의관들한테 몇 가지 문건과 보고서를 작성한 게 직권남용으로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다”며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그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역시 “통상적인 인사문건을 블랙리스트로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도 대부분 ‘포장’이고, 공소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법농단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 수사는 제 취임 첫날부터 퇴임한 날까지 모든 직무행위를 살살이 뒤져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수사인가,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 정면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수사, 권력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나라에서 법원에 대해서 이토록 잔인한 수사를 한 사례가 대한민국밖에 어디 더 있는지 묻고 싶다. 법원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할 지경이라면 어느 국민 누구한테 이런 수사를 못하겠나."

(특별 상황이 아닌 한) 국민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정부의 법을 지켜야 한다.

1.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다.

하나님의 정부 설립의 원래 목적: 국가를 위해 악 제거, 선 도모

그러므로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법들을 지켜야 한다(롬13:1-2, 벧전2:13-14).

2. 다음 문제, 그러면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100% 복종해야 하는가?

답: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온다.

초대 기독교가 확립될 때

예수님의 대위임(마28:19-20), 산헤드린 공회의 금지(행4:18), 제자들의 복음 선포(4:20; 5:29)

정부에 불순종하는 사례

다니엘서 3장, 두라 평야의 신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경배 요구, 그들의 대답(3:18), 하나님의 응답(19-20)

출애굽기, 남자 아이들 죽여라, 산파들 불복종(출1:16, 21), 복을 받음

에스더기, 아하수에로 왕에게 불복종(4:16)

다니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단6:10), 불복종

헤롯 왕 시대, 동방의 지혜자들, 불복종(마2:8, 12)

3. 현존하는 정부 무너뜨리고 자유 쟁취하는 것이 옳을 때도 있나?

미국 독립 이전, 영국의 식민지, 독립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은 정부에 불복종한 것 아니가? 즉 로마서 13장 위배

미국의 목사들 중에도 이런 견해 지지하는 분들, 대표적 사례, 존 맥아더 "미국 독립은 명백하게 로마서 13장 1-7절 위배, 따라서 미국은 신약성경을 어기고 태어난 나라, 미국이 받은 목음 그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견해 지지, 독립 전쟁을 안 하고 미국을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왕에게 복종함

웨인 그루뎀: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 성경의 원리에 따라 미국의 독립 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의롭다.

전쟁 당시 영국에 항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백성을 탄압하고 못살게 구는 경우 백성의 하위 관리들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의견은 요한 칼빈에게까지 간다. 기독교 강요(1559), 하위 관리들에 대하여

"하위 관리들이 일반 백성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공격하는 왕을 보고도 못 본체 하면 이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백성의 자유를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백성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임명받은 사람들이다.

루터 교 개혁자들, 다른 개혁 교회 개혁자들도 비슷함

실제로 종교 개혁 자체가 카톨릭이라는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난 운동

이들의 별명: Protestant, 항거자

심지어 천주교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폭정을 펴는 왕들에게 항거하는 권리 언급

정부 이론에 대한 전문가 그레그 포스터의 주장:

폭정을 펴는 정부는 사실 정부가 아니며 정부로 위장한 범죄 갱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런 정부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법치 원칙은 법대로 하지 않은 경우 반항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일을 위해 그루뎀 직접 이메일

독재가 아니라 폭정을 말한다. 폭정은 100% 나쁘다.

그러나 독재는 좋은 독재가 있고 나쁜 독재가 있다. 박정희의 독재(폭정 아님), 김일성의 독재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말해 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좋은 통치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러므로 독립 전쟁 건국 아버지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영국에 대해 올바른 일 그리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들을 영국의 폭정(조지 3세)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출하고 있다. 조지 3세 그는 폭군이다.

도둑과 강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조지 3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나라 군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조지 3세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독립 선언문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즉 영국의 폭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오랫동안 참아왔음을 밝혔다.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폭정의 사례들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개개인의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표로서 한다. 우리 의도의 결백함을 위해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식민지들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물과 신성한 명예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서약한다.”

또 하나의 이유: 현존하는 정부를 바꾸는 것에 대해 성경은 단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예; 민주주의 국가,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지도자들을 바꾼다.

즉 투표를 통해 이들은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 전쟁 같은 것을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성경: 치리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됨.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리더들을 사람들을 사용해서 임명하신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왕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움

셋째 이유: 현존하는 정부를 바꾸는 것이 어떤 때는 옳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가 성경에 많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폭군에게서 백성을 빼내신다.

모세와 파라오(출1-14)

사가기: 외국 지배자들 이스라엘 압제, 하나님은 재판관들 사용(삿2:16)

히11:33, 무력을 가지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 권력 설립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 성경의 역사 정확히 이해함

벤자민 플랭클린 미국의 대 도장을 만들자

모세는 해변에 서서 바다를 향해 손을 놀린다. 바닷물이 병거에 앉아 있는 파라오 즉 왕관을 쓰고 칼은 손에 든 파라오를 덮치도록. 구름 속에 있는 불기둥의 빛이 모세에게 내려온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거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모토: 폭군들에 반대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결론: 독립 전제, 독립 선언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조지 3세의 폭정으로부터 시민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미국 이후: 전 세계 자유 민주주의 헌법

1,2차 세계대전, 한국 전쟁, 자유 전쟁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보호

러시아, 중국 등 공산 독재 국가들 출현, 미국의 저지: 하나님의 섭리

그러므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 노조만 생각

이것은 폭정이다. 지금 국민들 도탄에 빠져 있다.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목사와 교회가 해야 할 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년 총선 투표 잘해야 한다.

10 성경과 정치: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성경말씀: 창9:4-6

웨인 그루텐의 성경과 정치, 지난 주, 정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롬13:1-2).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인간 자유를 억압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폭정에 대자하하여 정부를 바꾸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늘 < >

Liberty, 구속받지 않는 자유(해방의 자유), 성경에 총 27회(9+18, 레25:10-벤후2:19)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서 freedom이 나온다. 자유 공원 설명

개개인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선택의 자유, 하나님을 믿든지 거부하는 자유

성경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선택의 책임 강조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창2:16-17)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안에 있는 가장 뛰어난 특성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

1.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증진시켜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논점

성경의 관점: 자유는 긍정적, 속박과 노예 제도는 부정적

십계명을 보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 설명(출20:2)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속박에 던져 넣으시고 자유를 박탈함(사사기, 바빌론 포로)

그래서 메시아 재림에 관한 이사야서 61장, 구속자가 와서 자유 선포(사61:1)

이스라엘의 역사: 개인의 자유 존중, 가난을 면하기 위해 자신을 종으로 팔 수 있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돌아감(레25:10), 희년, 해방의 자유 선포

인간의 자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지(will)가 반영된 것이 자유, 자유 의지 심지어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

신30:19, 수24:15, 계22:17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선택 존중

특히 리버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정부는 비인간적으로 백성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게 된다.

2. 정부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 그러므로 정부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면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정부는 모든 백성이 각자가 생각하기에 최선인 방법으로 자기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 결과 학교 교육, 직업, 친구 교제, 신앙, 자선 활동, 돈 사용, 시간 사용, 휴식 활동, 음악, 예술 등 수많은 것에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

가족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 돌본다.

아이들 볼 게임 코치, 교회 행사, 새 사업 구상,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 추구

정부가 개개인에게 자유를 최대한 주면 시민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다.

어떤 자유를 정부는 보호해야 하는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부에 청원하는 자유, 미국 같으면 총기 소지의 자유, 불법 체포를 당하지 않는 자유

따라서 정부와 시민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북한이나 대다수 현대 이슬람 국가들처럼 인간 삶의 거의 모든 분야를 제재하는 전체주의 정부는 성경에 배치한다.

미국의 경우 1863년까지 노예 제도 허용,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한 나쁜 사례(딤후1:10)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독립 선언문: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또한 창조자로부터 떼려야 뗄 수 없는 천부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생명, 리버티, 행복 추구

생명 다음에 자유가 나온다.

정부의 목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권리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다.

3. 얼마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리버티가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일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 정부는 그 사람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고속도로 100킬로미터 싸인, 자유 제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필요하다고 대다수가 생각함 정부가 악을 저지하고 선을 도모하기 위해 개개인의 자유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악 제거 OK, 그러나 중립적인 것, 정부가 원치 않는 것에 대한 제재도 많다.

정부가 생명을 보호한다고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감소한다.

The least government is the best government. 토마스 제퍼슨
샌프란시스코에는 2007년부터 소매상이 플라스틱 백 규제, 종이 백만 사용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백의 자유 제한

플라스틱 백 만큼 많은 양의 종이 백을 가지고 다닐 수 없다: 찢어져서

그래서 나는 장보러 갈 때마다 차에서 집으로 더 빈번히 다녀야 한다. 모든 시민이 마찬가지이다.

종이 백은 많은 공간 차지,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려움, 이것 역시 자유 제한

별것 아니다. 환경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소송 때문에 공원/학교 등의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모험심이 사라지고 비만에 걸린다.

비행장에 가보라. 911사태 이후로 안전을 이유로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다. 이해는 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필요악이지만 여전히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환경 보호로 인해 강제 규정으로 각종 쓰레기들을 다른 봉투에 담아야 하고 또 특정일에 내다 놓아야만

하는 것 역시 자유 제한

미국은 2014년까지 백열전구는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것들로 바꾸는데 그전만 못하다.

전구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가?

특히 정부의 세금은 자유를 제한한다.

100달러 세금, 원래 그 100달러로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짐

100달러를 세금으로 냈으므로 더 일해야 그 돈으로 하고자 하던 것을 할 수 있다.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면 낼수록 내 자유가 조금씩 제한된다.

특히 사회주의 정부가 되면 수입의 50% 이상을 강제로 내야 함

현재 가장 많이 이민 가는 나라: 프랑스(부유세 신설), 중국, 어디로: 미국, 캐나다, 호주

상속세 현재 약 65%(50%), 자연히 떠날 수밖에 없다.

4. 정부는 국민을 구원하거나 인간 본성을 바꿀 수 없다.

1.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정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게 맡기신 일

사람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엡2:8-10

히8:10

정부는 죄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질 때 가능

고후5:17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

모든 사회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정부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 부활

골2:3

2. 사회가 변화되려면 변화된 개인들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변화된 것을 보려면 개인들의 변화가 있어야만 함을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

좋은 법을 만들고 좋은 정부를 갖는 것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좋은 법 소유, 그러나 그 법이 그들이 사악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지 못함
결국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할 것: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국가를 바꿀 수 없다.

미국 같으면 동성 결혼 합법화, 이론상으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낙태법도

그런다 해도 혼전 섹스, 불법 장소에서의 낙태, 동성애 등을 막을 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하기 전에는 안 된다.

사람들의 윤리 정신이 좋은 곳에서는 법들이 작용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사회가 부패하면 법들은 가장 사악한 종류의 범죄들만 막을 수 있다. 다른 것들에는 손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전국의 아버지 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헌법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법이 적절하지 않다. 원리 미국은 이교도들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다.

근현대 자유 헌법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반한 원리들을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

한 국가의 시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좋은 정부나 법을 만들기 어렵고 좋은 리더들을 선출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의 다수가 유리 도덕의식이 없으면 그런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나 정부가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당선될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애 찬반 투표를 했다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교회는 투표를 통해 교육을 통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경에 나오는 도덕 윤리를 가르쳐야 한다. 개인의 언행, 정부 선택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이 점을 중시하고 잘 가르치고 전도해야 한다.

11 성경과 정치: 정교 분리의 의미와 교회 및 목사의 정치적 발언 필요성 성경말씀: 창9:4-6

웨인 그루렘의 성경과 정치,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부에 대한 공부,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 질서 유지, 인간 복지 추구, 지난 주,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가장 큰 의무,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막지 않는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정부, 인간의 자유 최대
오늘은 정교 분리와 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발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필연적으로 세상에는 악한 정부, 좋은 정부가 있다,

악한 치리자들, 법으로 불의를 조장함(시94:20)

악법을 통화하여 국가를 망침(사10:1-2)

사람들이 악을 행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치리자들(시125:3)

에스더기,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시절, 하만 등장 유대인들 멸절하라는 법령(에3:13)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함(딤후2:1-2, 시11:3)

반대로 선한 지도자는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다. 사회의 복지 증진

아이들의 교육, 미국은 조지 워싱턴, 링컨의 위인전을 통해

그런데 빌 클린턴 같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위는 아이들에게까지 악한 영향

오바마 동성 결혼 합법화

이렇게 되는 이유: 법은 가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어떤 것이 합법적이라는 법을 통과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도덕 윤리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반대도 성립된다.

법의 이런 영향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정부가 합법적이라고 했으니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양심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 자행하게 된다. 법 때문에

만일 낙태는 위법, 동성 결혼은 위법이라는 법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이 자제할 것이다.

총기 소지: 미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아무 문제없다고 봄, 법이 OK

영국: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문제가 있다고 봄, 법이 금지

이런 문제는 동성 결혼, 이혼, 청소년에게 술 파는 것(몇 살에)

또한 정부가 옳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이 학교 아이들에게도 영향

최근의 동성 결혼 합법화, 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는 정상 OK

동성애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만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어떻게 교육받느냐는 그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고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법이나 정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의 말씀.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마22:39), 죄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바르게 투표하여 좋은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백성과 국가의 의는 나라를 살리지만 반대는 나라를 망친다(잠14:34).

정교 분리: 교회와 정부의 올바른 관계

마22:21,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국가의 영역, 교회의 영역이 있다. 정교 분리, 그 결과 몇 가지 원리

1. 교회는 카이사르의 것들을 주관할 수 없다.

교회는 시민 정부가 하는 일들을 주관할 수 없다. 중세 암흑시대 천주교처럼, 국가 교회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동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를 책임지지 인간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즉 정부의 관료들이 있고 교회의 목사들이 있다. 서로 다른 기능

심지어 예수님은 사회의 정의를 위한 재판관 행위를 하지 않았다(눅12:13-14).

즉 정부의 일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거부함
따라서 중세 시대에 교황들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이다. 정교 분리 위배

2. 인간 정부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주관할 수 없다.

즉 모든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 취사선택의 자유
정교 분리 정의: 국교 불가능, 한 종교 선호, 다른 종교 박해 안 된다.

미국 헌법에 등장, 그 전의 유럽 사회 국가 교회, 종교의 자유 불가능, 미국 대륙에서 정교 분리
실시,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건국 미국 헌법 수용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직무 수행자들 세우는 것을 보라.

처음 12제자, 정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움

초대 교회 일곱 집사(행6:3), 교회가 세움

바울은 감독의 자격 명시(딤후전3:1-13, 딤후1:3-9),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불간섭
구약 시대는 신정 정치, 교회와 국가가 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으로 오면서 정교 분리: 교회 정부와 시민 정부는 다른 시스템이다.

즉 교회의 치리 영역과 인간 정부의 치리 영역이 다르다.

3. 그럼에도 인간 정부는 교회들을 지원해야 한다.

국교는 불가능,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들의 종교 행위를 지원해야 하는가?

미국의 경우: 교회는 면세, 부동산, 현금, 기부금에 세금 부여하지 않음
또 정부는 미국 군대와 감옥에 담당 목사들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정교 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복지, 군대나 감옥에서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정부는 국민들의 일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군대의 경우 군목, 군승, 신부 등이 존재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 한국 국민들이 간과하는 것

사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사실

특히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활발하면 국가 발전

카톨릭, 이슬람 등의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국가들이 거의 다 못 산다.

그런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부가 교회에 간섭을 많이 하기 시작한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하면 세금 매기겠다. 한국 종교인 세금

4. 국가와 교회 문제에서 어떤 경우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즉 카이사르의 것들인가, 하나님의 것들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같듯이 생긴다.

고대 로마 사회: 카이사르의 동상에 절하고 그를 신으로 여기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교회는
할 수 없었다. 사실 카이사르에게 절하는 것은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

그런데 초대 교회는 이것을 우상 숭배로 보았다. 즉 하나님의 일들

그래서 절하지 않다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현 시대 미국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들의 수혈 거부, 그들은 종교 영역, 정부는 정부의 보건 영역(수혈을
통해 생명을 살려야 한다). 증인들 부모들의 반대로 어린 생명 죽음, 정부는 살려야 한다고 봄

뉴멕시코 주: 브라질 종교, 자기들의 전통 예배 시 환각제 사용 불가피, 대법원 OK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다른 그룹, 마리화나를 재배해야 한다. 연방 법원 불가

이슬람 여인, 자동차 면허, 종교 규정에 따라 베일을 하고 사진을 찍겠다.

정부의 결정, 면허를 받으려면 베일을 치우고 찍어야 한다.

정교 분리의 잘못된 이해

정교 분리: 국교 허용 불가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 3.1 운동 등 교회가 주관, 교회는 늘 애국, 막기 위해 교회는 정치 발언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굳어져서 교회나 목사는 정치 발언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함

지금까지 보여준 것: 정부는 사회의 모든 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

인이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나라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면 비판하고 조언할 권리가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회 목사들

목사는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 전임 사역자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부와 정책에 대해서도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왜 목사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 사심 없이 나라가 잘되도록 조언할 수 있는 사람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다 목사를 키우기 위한 학교들로 시작, 왜 사회의 리더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무조건적인 이슬람 난민 수용 등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바로 투표해야 한다고 촉구할 책임이 있다.

12 성경과 정치: 정부 권력의 분배 및 법치의 필요성

성경말씀: 창9:4-6

웨인 그루템의 성경과 정치, 지난 주 정교 분리, 신약 시대 특징: 세속 정부와 교회의 분리
정부의 영역, 교회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 정교 일치 신정 정치가 되면 안 된다.
하지만 교회는 정부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목사와 교회는 정치 발언 가능,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할 때, 오늘은 <정부 권력의 분배와 법치의 필요성>에 대해 살피려고 한다.

정부 권력의 분배 필요성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있다. 정부 권력의 영향은 지대하다.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권력의 분배를 이루어야 한다.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하면 안 된다.
구약 성경의 여러 악한 왕들의 사례

사울은 종종 자기 이득에 먼저 관심을 둬

다윗은 밋세사 사건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간음, 살인(삼하11)

솔로몬: 700명의 아내, 300명의 첩(왕상11:3-4),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의 은과 금 소유, 성전 및 왕궁을 건축하면서 국민들 착취

열왕기상하를 보면 대다수 왕들이 권력 남용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막대한 국가 권력에 죄가 더해지면 심각한 규모의 부패가 발생한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면서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하였다(삼상8:11-18).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야 한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확실한 삼권 분립

성경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다.

구약 성경: 왕 옆에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많은 경우 왕들이 이들 무시함).

신약 성경: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열두 명이 교회를 다스리게 함(마10:1-4)

처음에는 베드로가 대표 역할을 했으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나중에는 야고보(행15:13; 21:18; 갈1:19 등)

또한 행15의 예루살렘 회의 결정: 한두 사람의 사도의 결정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행15:22)

신약 성경 지역 교회의 경우 대개는 복수의 장로들과 집사들: 물론 대표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삼권 분립: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입법부는 상원(6년)과 하원(2년)으로 구성됨

또한 중앙 정부가 있고 50개의 주정부 그리고 주의 카운티 정부 등(지방 자치)

군대는 대통령과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이끈다.

군대를 지원하는 일은 반드시 입법부를 통해 이루어짐

군대는 또한 경찰과 다른 임무 수행

경찰은 연방 경찰과 지방 경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폭정을 막기 위해 두 번째 헌법 수정안에서 총기 소지 권리 명시

스위스도 전 국민에게 무기 사용 교육 및 훈련

정부의 정보 공유 및 배포 의무: 정부가 하는 일 공개적으로 알림

이를 통해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이 여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함

정부 견제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언론, 방송, 집회의 자유 보장

미국의 경우 권력 분배를 위해 대법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치가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좋은 정부의 특성: 법이 치리자들을 다스리지 치리자들이 법을 다스리지 않는다.

위키 백과: 법치란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원리, 헌법 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교회 같으면 법치란 성경대로 하는 것을 뜻한다.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도 이것을 중시했다. 물론 그것은 율법(신17:18-20)

법치의 의미: 대통령이든 왕이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없다. 헌법의 틀 안에서 치리해야 한다.

왕이든 대통령이든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사례 삼하12).

다른 왕들도 대언자들에게 경고를 받았다(사울과 아합 등).

초대 교회를 보면 심지어 베드로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다(갈2:11-12).

미국의 경우 주지사, 상하원 의원의 뇌물 수수, 자기의 이득을 위한 권력 남용, 유죄 판결 사례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트럼프 러시아 게이트 등

법치의 실종: 한 그룹이 두려움도 없이 법 위에 서서 법을 무시하면 발생한다.

작은 나라들의 독재자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치리자들(시진핑, 푸틴), 이슬람 국가들, 천주교 국가들

공통점: 전체주의 독재, 폭정

우리나라 법치 실종의 대표적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언론사 보도들로 자료를 만들어 탄핵 소추, 죄들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탄핵

사법부의 좌편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장악(대법관, 헌법 재판관 등)

행정부의 주사파 세력 장악: 임종석, 조국 등 청와대 비서관들

법치 실종 국가의 특징: 정부의 언론 독점, 지금처럼 언론이 가짜 뉴스 남발한 적이 없다.

정상적인 국민들 누가 공중파 방송을 보는가? 김제동이 같은 개그맨들도 정치 뉴스

조갑제 선생: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마음대로 위반하고 있다.

7월 19일 블룸버그 통신: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이 아시아에서 파키스탄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을

내고 있으며, 원화의 연중누적수익률은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들이 활력있던 한국경제의 야성을 앗아갔다고 진단했다

바로 이것이 법치 실종, 헌법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법치를 회복해야 한다.

모든 국가/민족은 애국심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크리스천들은 국민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애국심을 보이는 태도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 이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있다. 또 치리자의 정책이 대개는 선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악할 수도 있다.

진정한 애국심은 국가의 유익을 도모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이 성경의 원칙들에 위배되는

일을 하면 정직하게 정부와 지도자들을 비판해야 한다.

성경은 모든 국민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야 함을 가르친다고 나는 믿는다.

1. 애국심에 대한 성경적 이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이 땅에 굳게 세우셨다(행17:26).

한 예: 아브라함(창12:2), 그 뒤 창22:18

창세기 10장 민족들의 기원(10:32). 욥의 말(욥12:23)

성경에 나오는 민족 혹은 국가의 정의: 주권을 가진 동일한 정부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국가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바벨 탑 사건의 의미

이유: 땅에서 정부의 권력을 분배해서 가지고 있다. 즉 전 세계를 다스리는 독재자 출현 방지

세상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 앞으로 마귀의 세상,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 출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애국 시민이 되어야 함을 가르친다(벧전2:17). 롬13:1, 4, 7

구약 잠언24:21, 전10:20, 렘29:4-7 등

그런데 민족주의가 종족주의가 되면 안 된다. 국가 위에 민족을 두려는 시도

다른 국가들과의 신의를 깨는 행위, 반일 종족주의

2. 애국심의 유익

a. 커다란 사회에 속한 소속감을 준다. 자기의 신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b. 국가가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에 감사하게 된다: 공항, 항구, 도로, 공원, 교육 병원 시설, 화폐

c. 자부심 공유: 운동, 과학, 경제, 예술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기 나라 사람들

d. 미래에 대한 안전 감: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유익을 위할 것이다. 누가 쳐들어와도 나라를 지킬 것이다.

e. 국가에 대한 의무감: 이런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f.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의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이민자들에게 물려준다는 의무감
반면에 자기 나라에 대한 증오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다.

국가가 주는 많은 혜택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의 부정적인 면들만 드러내려 한다.

미국에도 이런 사람들 많다. “미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인디언들이 그대로 살게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복지, 혜택 가능한가? 무조건 반대하는자들

이것이 극대화되면 그 국가는 망하게 된다.

13 성경적 세계관의 필요성과 핵심 내용

성경말씀: 창1-3장

지난 12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들 살펴봄

1.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정교 분리, 3. 정부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치리자를 잘 뽑아야 하고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4. 교회 목사는 성경과 정치에 대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제 낙태, 동성애, 환경 문제 등 실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것

세계관의 정립: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안경이 잘못되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나온다.

세계관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과 창조 세상의 관계에 대한 진리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과 다르다. 여기서 현실 세상의 갈등이 나온다.

A.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1:1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기록됨

지구 환경과 관련 있는 것식물(11), 새와 물고기(20-21), 짐승(25)

그리고 사람 창조, 사람의 경우(27)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요소: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것이 창조됨, 창조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행위
열역학 1법칙: 질량, 에너지

창조의 결과: 모든 것은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다.

이런 세계관과 세상의 세계관의 충돌: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친다.

1. 아이들 교육에서 하나님의 우주 세상 인간 창조가 배제되면 우주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이들에게 숨겨지는 것이다.

우주와 세상의 창조, 시공간의 창조,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세상은 진화론을 가르친다. 시작부터 이것 자체가 창조와 갈등을 일으킨다.

2.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창조물은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해야 한다(계4:11).

3. “ ”,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시19:1; 롬1:20).

B. 그 한 하나님은 성경에 자신과 자신의 도덕 규범들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참 믿음이 생긴다(롬10:17).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인가? 딤후3:14-117, 벰후1:20-21

성경의 모든 단어(마4:4)

시내 산 십계명, 율법(출20:1-17)

율법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시119:1).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시119:9, 11

성경의 윤리는 한 사람, 교회,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윤리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성경적 세계관: 한 하나님 창조자, 그분의 윤리와 도덕 법규: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됨
행17:24, 30-31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 태아, 남녀노소에게 해당됨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말함

C. 원래 세상은 좋았다.

창1:31, 심히 좋았다.

그 세상: 가시와 찔레가 없던 완벽한 세상

이런 완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일거리를 주셨다(창2:15).

의무를 주셨다(창1:28).

그러므로 생산적인 일은 자체가 악이 아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

무상복지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성경과 맞지 않는다.

D.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으로 악이 있다.

성경적 세계관: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적으로 악이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 수태되면서부터 이미 죄성이 있다.

죄성: 죄를 지으려는 경향

아담과 이브의 죄의 전가, 온 인류는 죄성이 있고 죄가 있음(롬5:12, 18-19)

1.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 밖에 있는 절대적인 것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절대 규범을 무시하고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상대적인 판단을 한다.

“모든 사람은 원래 선하고 옳고 그름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성적 지향, 어떤 사람은 이성애, 어떤 사람은 동성애

2.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 않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의 악은 아담에게서 선은 하나님에게서(롬2:15) 하나님의 형상의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약1:13-15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그의 악한 선택의 결과

물론 환경도 나쁘지만 전적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현시대 사람들의 주장: 사람은 원래 선한 데 주변 환경 혹은 사회가 나쁘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항상 남 탓을 한다. 이것이 죄악이다.

3. 그 결과 사람의 범죄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4. 어떤 사람들은 심히 큰 악을 저지른다.

악을 저지르려는 경향이 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바로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롬13:3).

그런데 사람은 선하다고 믿는 이들은 정부의 공권력 사용 반대, 평화롭게 대화로만 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고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독일 나찌, 전쟁으로 해결함

E.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지금의 자연계는 하나님의 원래 자연계가 아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자연계

창3:17-18

가시와 쟁쟁: 각종 자연 재해, 야생 짐승 등

현 시대의 자연계는 항상 선하지 않다. 그래서 방파제 설치, 잡초 등

F. 하나님은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지혜롭게 개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창1:28)

즉 땅을 개발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다. 다만 파괴시키지 말고

짐승도 사랑해야 한다(잠12:10).

마22:39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후손들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원래 선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해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지구에 들어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분명히 사람들이 오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자원을 기뻐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셰일 가스 개발, 4대강 보 등을 보면 답이 나온다.

14 정부는 결혼, 이혼, 동성애 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창1-3장

지난 13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들 살펴봄

1. 정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정교 분리, 3. 정부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치리자를 잘 뽑아야 하고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4. 교회 목사는 성경과 정치에 대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제 기본 원리들을 생명 문제(낙태, 안락사 등), 결혼(이혼, 동성애 등), 환경, 전쟁 문제 등 실제 문제에 적용해야 한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이 책의 7장 결혼 < >

시대가 악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도 가르쳐야 한다. 기초가 무너지므로

결혼이란 무엇인가?

정부는 결혼 제도(결혼, 이혼, 동성애 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A. 결혼에 대한 성경의 정의: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합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결혼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

1.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시초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유지하는 관계로 정하심

창1:27-28, 창2:25(그 남자와 그의 아내)

아담과 이브의 관계: 땅에 존재할 모든 결혼의 패턴

여자를 창조한 방법을 보라(2:21-22).

그리고 아담의 반응을 보라(23)

결혼의 패턴(24): 남자가 떠나야 한다(leave).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한다.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cleave)는 새 가정의 기본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임을 보여 준다.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의 연합'이다.

예수님의 말씀(마19:3-6)

1. 사람을 만든 창조의 시작에 결혼 제도가 성립됨(19:4; 막10:6)
2. 한 남자와 그의 아내의 결합이 결혼이다(남성과 여성, male and female).
3. 일생 동안 지속된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마19:7-8 설명, 원래 이혼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물론 사람의 완악함, 죄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이혼 허용, 나중에 설명

결혼한 뒤 서로에게 신실한 것 매우 중요, 간음은 사망을 부르는 심각한 죄(출20:14), 7계명

2.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

구약의 많은 율법: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들 많다. 의식법, 시민법 등 신정 국가: 창조 후 2500년 뒤 출애굽, 그 이후 주어짐

그러나 결혼은 창조의 시작에 전체 인류에게 주어짐(마19:4; 막10:6)

3. 그러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유지되는 관계: 역사, 문화, 철학, 사상에 관계없이

4.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붕괴시키는 동성애 도시 소돔과 고모라 심판(창19, 유7)

이집트의 파라오, 아브라함의 아내 탈취, 간음, 심판하려 하심(창12:7-20)

그래서 잠언은 간음의 어리석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다(2:16-19; 5:1-23; 6:20-35; 7:4-27; 23:27-28 등)

신약성경 침례자 요한, 헤롯 안디바 책망(막6:17-18), 이 일로 목숨을 빼앗김

사도 바울 이방인들의 성적 죄악 심판(롬1:26-27; 고전5:9-10, 13)

계시록의 바빌론: 많은 죄 가운데 음행이 포함됨(계18:3, 9), 계21:8 음행을 일삼는 자 새 예루살렘에서 제외됨

결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결혼에 대해, 성적 죄에 대해 하나님은 초지일관 보여 주신다.

레위기 18장: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행위, 가증한 행위, 부정하게 됨(6-23, 27)

6-16 근친사간, 20 간음, 22 동성애, 23 수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그 의미대로 정의해 주기를 원한다(이 말은 정부가 이혼을 금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3.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은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도이다.

하나님의 여러 기관: 정부, 이스라엘, 교회, 학교, 대학교, 사업체, 사회 클럽 및 기관들, 그러나 창1-2장의 결혼 제도가 가장 기본이다. 이것이 바로 서야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

지금까지 온 인류는 예외 없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 왔다.

프로이드는 성의 개방, 자유를 주장해서 현 시대의 음란 풍조 조장

영국의 인류 학자 J. D. 언윈, 86개의 다른 문화 조사, 사회가 발전하려면 엄격하게 일부일처제가 시행되어야 함을 발견함,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 세대가 지나면 사회는 망한다.

부부 사이의 건전한 결혼 문화의 전통을 물려받지 못하는 세대는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잃는다. 그래서 결국 망한다.

B.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는 성경이 금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특정한 형태의 성적 파행을 금한다.

1. 근친상간(레18:1-18; 20:11-20; 신22:30, 고전5:1-2)

2. 간음(여러 군데, 출20:14), 수간 네덜란드 등

3. 동성애(레18:22; 20:13; 롬1:26-27; 고전6:9-11; 딤후1:9-10)

동성애 옹호론자들: 이런 구절들은 남자와 소년, 남창과의 관계, 성실하지 못한 동성애 관계에 대해 말한다. 아니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동성애에 대해 죄라고 말한다.

롬1:26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난다'

플라톤(BC 429-347)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기쁨은 자연적인 것이다. 본성에 맞는다. 그러나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을 통한 기쁨은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역사가 요세푸스(AD 37-100), 테베와 엘리스 거주민들의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나는 악이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크(AD 50-120): 동성애는 본성에 어긋난다.

신약 성경이 본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는 표현을 다른 역사가들도 동일하게 사용한다.

C. 구약성경의 일부다처제

구약에는 일부다처제 유행, 하나님의 방법인가?

하나님은 잠정적인 기간에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셨다. 그럼에도 결혼 원리는 동일하다.

일부다처제를 해도 된다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 역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허용됨

그러나 일부다처제의 사례들을 보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창16:29-31; 삼상1; 왕상11 등).

일부다처 금지(신17:17)

여자들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벧전3:7)

D. 이혼

구약 성경은 이혼이 가능한 사례들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랍비들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신24:1-4; 레21:7, 14, 민30:9

신약성경의 이혼 가르침에 대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이해: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 예수님도 이혼과 재혼을 허용했다(마19:9).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 이혼 가능(고전7:15)

정부는 이혼에 대해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할까?

간음 등 심각한 죄가 아닌 경우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 강제 상담, 이혼 전 강제 대기 기간, 배우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이혼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번에 영화 감독 홍상수(여배우 김민희), 이혼 신청 기각, "홍 씨와 A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주된 책임이 홍 씨에게 있다"며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이혼이 된다.

미국의 경우 배우자가 죄가 없는데도 이혼할 수 있는 법 1970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주 그 이후로 이혼을 급증, 사회 병들고 망한다. 미국의 절반 정도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막으려면 간통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없애 버림

이런 법이 없으면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사회는 점점 병든다.

E.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

1.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 1. 악을 저지하고, 2. 사회에 선을 가져오며, 3. 사회에 질서 확립 그러므로 정부는 결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

2. 오직 정부만이 공권력을 가지고 결혼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사회는 혼동에 빠진다.

미국은 현재 동성 결혼 합법화, 교과서에까지 기술됨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악행에 빠지면 안 된다. 좋은 국회의원, 교육감, 대통령 선출 중요함

3.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인구가 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부족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한두 세대 뒤에 엄청난 위기

4. 동성 결혼 가정에서 입양된 아이들 문제, 동성애 답습

5. 에이즈 등 질병 문제, 엄청난 국가 재정

결혼 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귀하게 엄중하게 여겨야 한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혼 서약

하나님의 제도: 신랑: 나 정동수는 그대 오혜미를 아내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날까지 예수님께 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같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오늘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결국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무

15 정부는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같은 생명 윤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창1-3장

지난 14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들 살펴봄, 지난주부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지난주는 결혼, 이혼, 동성애 등 결혼 문제, 정부가 어떻게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을 가능한 한 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가? 법을 바르게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오늘은 생명 윤리 문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낙태

2010년 통계, 연 34만회, 95.6% 불법, 전국 산부인과 80% 낙태 수술, 96%가 12주 미만, 2017년 통계 하루 3,000명, 약 백만 명, 인구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소 낙태 허용 “정부는 태중에 있는 생명을 보호할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 대답 Yes, 1. 그러면 수태된 순간부터 보호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2. 태중의 생명을 무어라 불러야 하는가? 태아, 태어나지 않은 아기, 아기

3. 태중의 생명을 죽이면 어떤 형벌을 주어야 하는가?

No, 1. 그러면 정부가 낙태 비용을 대 주어야 하는가?

2. 낙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도 강제로 낙태 시술을 해야 하는가?

3. 정부는 낙태를 장려해야 하는가?

낙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a. 성경은 수태된 순간부터 태아는 인격체로 규정한다.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수태 6개월, 마리아 방문(눅1:41-44), 엘리사벳은 6개월 태아를 아기라고 부른다. 태어난 이후의 아기와 동일한 말(눅 2:16), 또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인격체의 반응)

시51:5 내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수태하였나이다. 수태부터 죄인, 인격체

시139:13, 태에서부터 인격체, formed me. me라는 인격체

창25:22-23, 리브가의 쌍둥이 아이들, 아이들 인격체(에서와 야곱)이 다름

출21:22-25, 해가 있어 아이가 낙태되거나 어머니가 죽거나, 생명은 생명으로

모세의 도피 도시 규정, 우연히 사람을 죽인 경우, 생명을 살려 줌

그러나 태중 아이의 경우 우연히 죽여도 “생명은 생명으로”

이미 낙태 경험 있는 분, 하나님께 자백하고 되들의 용서를 받으라(요일1:9)

b. 과학적으로 태아는 이미 하나의 생명체, 인격체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어빙 박사(생화학자) 정자와 난자; 인간의 일부, 이 둘이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 이미 다른 인간이 형성된 것이다.

c. 낙태 찬성론자: 태아는 인격체가 아니다.

1. 홀로 말하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심한 사고로 콧마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람이다.

2. 강간이나 근친상가에 의해 수태된 경우,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죽이면 안 된다.

3. 엄마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경우: 실제로는 전체 낙태의 0.12%

아이 하나를 죽이는 것, 엄마와 아이를 둘 다 죽이는 것, 결국 이 경우는 OK

그런데 이것을 남용하면 엄마의 생명 위협이 아니라 건강 위협이 되면 문제가 달라진다.

d. 페미니즘, 엄마 즉 여성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자기가 원치 않는 아이를 법이 강제로 낳게 할 수 있는가? 인권 문제가 아닌가? 미국의 민주당: 대개 낙태는 반대하지만 엄마에게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

우리의 의견: 인권 주장에 한계가 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술이나 마약을 하고 운전할 권리는

없다. 이런 것처럼 아이의 엄마라 해도 아이를 죽일 권리는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아이의 생명을 취할 자유를 법이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e. 모든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아이여야만 한다는 주장

이것도 미국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아이만 낳기 원한다.

- 그러나 태아를 사람으로 보면 이런 주장 억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야 하는가?
- f. 낙태는 반대하지만 정부가 법으로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한다.
아니다. 낙태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음주 운전 반대, 그러나 정부가 음주 운전 반대 법 만드는 것 반대, 그 사람의 자유”
- g.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규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지 말라.
낙태 반대는 대개 기독교인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간단히 생명 윤리로 보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의 다수도 생명 윤리로 보고 반대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기독교인들이 행도하는 데 앞장선다.
- h. 결론
1. 정부는 엄마의 생명 위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2. 정부는 낙태를 조장하는 정책이나 기금을 만들면 안 된다.
 3. 의학 연구를 위해 배아를 죽일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면 안 된다. 배아란 수태 후 8주까지의 태아를 말한다. 치료형 줄기 세포는 장기를 만드는 데 사용됨, 지금은 줄기 세포를 어른들에게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목적으로 배아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안락사

영어, Euthanasia: eu(good), thanatos(death), 좋은 죽음

현재 6개 국가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등

장기적으로 병을 앓아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정신 기능이 상실된 사람, 또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경우 주사를 놓아 죽여도 되는 것 아니냐?

a. 성경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출20:13; 마18:19; 롬13:9),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 살인하지 말라에
는 모든 사람이 포함됨

낙태는 생명의 초기에 죽이는 것, 안락사는 생명의 후반부에 죽이는 것

삼하1:1-16

사울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죽여 달라고 하자 아말렉 사람이 그의 죽음을 도와 줌

1. 사울이 죽을 상태에 있음, 2. 심히 아픈 상태, 3. 환자가 요구함, 4. 사울이라는 왕이 명령을 내림(즉 법으로 명령함)

그런데 다윗을 잘했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임

사형제도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해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인명 납치(유괴), 비행기 납치, 국가 전복 기도, 스파이 행위
과연 정부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사형에 대한 성경의 규정(창9:5-6), 노아의 홍수 이후 정부가 주어지면서 사형제도 규정
피를 흘려 사람을 죽게 한 사람,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신 죽인다.

이유 6절,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존엄 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죽이는 것, 하나님께 대한 도전

그래서 창9:6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권위 표시

사형 제도는 사람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안, 그러므로 정부의 사형 집행 권리는 하나님에게서
옴,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보다 1000년 전에 만들어짐

롬13:1-7, 정부의 역할, 정부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칼을 헛되이 차지 않는다(4절)

벧후2:13-14도 비슷한 말씀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가?(롬12:9),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13:4).

즉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정부에 맡겨라.

현 시대는 인명 경시 현상

그래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사람이 많다. 일벌백계 사형이 집행되면 살인이 감소한다(전8:11)

16 정부는 사유 재산권, 경제 개발, 돈 유통,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출20

지난 15시간, 13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들 살펴봄, 두 주 전부터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지난 2주는 결혼, 이혼, 동성애,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에 대해 살펴봄
오늘은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사유 재산권, 경제 개발, 돈 공급, 자유 시장과 규제, 부자와 가난한 자, 정부와 사업, 세금, 사회보장제도, 의료 체계, 경제 불황 타개책 등

A. 사유 재산권

정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

성경은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사유 재산권을 기록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분명하게 재산이 국가나 사회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것임을 가르친다.

십계명의 8계명(출20: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 재산권

10계명도 마찬가지(20:17), 아예 욕심도 내지 말라

왜 그런가? 내 이웃의 것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배격한다. 사유 재산 부인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유 재산이 없고 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하며 그러면 인간은 비참해진다.

그런 사회에서는 정부가 모든 것, 사고파는 것, 주거의 자유, 직업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여행의 자유 제한, 그러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감옥이 된다.

또 다른 성경 구절(신19:14),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사무엘기상 8장 10-18절, 왕에 대한 규정, 정부가 강해지면 결국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박탈 가능성
왕상 21 결국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송사를 하고 결국 나봇을 죽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 재산권을 주셨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창1:27),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사유 재산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속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권적 소유자, 그래서 우리도 그 중 일부를 소유한다.

이런 것들을 소유하며 관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창조성, 다른 사람 사랑, 그분의 정의 공의, 지식, 긍휼을 닮을 기회를 갖는다.

또한 사유 재산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수많은 규제들로 개인의 자유를 얽어매는 나라들이 많다.

페루, 국가 소유의 땅에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데 207개의 정부 규정 통과, 52개 정부 사무실 통과, 총 6년 11개월, 필리핀, 헤이티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유 국가에서는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함: 좋은 국가의 특징

대표적 사례, 트럼프 행정부, 규제 철폐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 수많은 규제

국가가 경제 개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사유 재산을 쉽게 취득하고 등록하는 것

미국도 민주당이 문제, 오바마 행정부, 건강 보험 시스템, 연방 정부 콘트롤, 비용, 미국 GDP의 17.6% 정부가 거대해지면 개인은 왜소해진다. 지금 트럼프는 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 철폐, 작은 정부

캘리포니아 매해 산불, 자기 집 근처의 숲이나 나무 제거 필요. 그러나 환경 정책이 못하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 화재로 망한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 기업 상속세를 없애든지 대폭 줄여야 한다. 기업 의욕 없어짐, 고용 감소, 국가 멸망의 길, 대기업 선호 1위 기업; 삼성, 그러면서 가자 미워함, 이런 기업들이 유지되어야

국가 유지 가능, 상속제 폐지 등

B 경제 개발

정부는 건강한 경제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가계 수입을 늘리는 정책

그러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이런 일에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노인들 공익 요원들 배급 주는 것 말고

반대 의견: 돈이 많아지면 물질만능주의에 빠진다. 가능성이 있다. 돈을 사랑하면

그러나 경제 개발 자체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창1:28), 경제 개발 당연한 것

땅에서 많은 것을 창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로 인해 잘 살게 되었다.

경제 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개인, 기업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보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있다(신8:7-10).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목자의 일, 예수님도 목수 일,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경제 발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땅을 개발하고 창조적인 계획으로 가꾸고 꾸며 나가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 당연하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장려해야 한다.

C. 돈의 유통

정부는 건강하게 돈이 유통되도록 해야 한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딤후6:10).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일, 선한 일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자급자족, 지금은 불가능, 시장에서 사고팔아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오고 가야 한다.

이 돈을 만들고 관리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이다.

가장 중요한 것: 돈의 가치가 오랜 시간 유지되어야 한다.

20만원 주고 방에 페인트 칠, 그 다음 주 100만원,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는가?

과거에 인플레이션 겪은 나라들이 많다. 자고 일어나면 두 배, 세 배

그러므로 정부는 돈의 가치가 잘 유지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돈의 가치 하락에는 여러 요인: 가장 중요한 것, 국가의 힘이 약해지면 하락

현 시대 패표적인 사례: 베네수엘라, 최근 중국, 한국

베네수엘라 60,324%, 돈 가치가 603배 하락, 그냥 휴지 조각이다.

D. 자유 시장 경제

기업들 간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최소한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거래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 의료용 물품, 음식 등에는 건강 규정(독성, 용량 등)

주유소 연료 펌프 검사, 각종 무게, 길이 측정 장치 검사

정부는 길도 만들고 항만, 공항, 교통 법규, 군대, 경찰, 소방서 등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하는가?

자유 시장 경제 주의자: 정부는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라.

사회주의자: 정부가 국민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러려면 정부가 은행,

대기업 등 모두 국유화해야 한다.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체제는 없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볼 때 16세기 이후 근대 사회가
열리면서는 국가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만 대다수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1. 성경 자체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사유 재산권). 정부는 선한 자에게 사을 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것 이상의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 즉 정부가 국가 소유의 재산이나 기업을 갖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 성경은 치리자가 사유 재산을 빼앗은 것을 거듭 경고한다.
3. 성경은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한다. 이것은 곧 행복 추구권이다. 이것이 보장되려면 자유 시장 경제 체제가 되어야 한다.
4. 역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가면 개인과 국가가 멸망함을 보여 준다. 자유 민주주의/자유 시장 경제라야 발전한다.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그리스, 베네수엘라를 보라
5. 사기업이 국가 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질 좋은 제품을 낸다. 100% 확실하다.
6. 미국도 과거에 국영 기업이 있었다. 그런데 다 망한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자의 말: 핀란드 헬싱키에서 러시아 레닌그라드(쌍테페테르부르크), 버스로 4시간
두 도시가 완전히 다르다.
7. 자유 시장 경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연히 생산성 향상, 기업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고용, 생산성 향상,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 기업 망한다. 대한민국의 노조(심지어
자식에게 직장 승계, 안 된다).
9. 자유 시장 경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 생산, 낭비가 없다. 어떤 정부도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된다. 조금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많다. 그러면 자연히 퇴출될 대학들이 생긴다. 그런데 자꾸 정부가 관여해서 막으면 안 된다. 퇴출되도
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고등학교 대학교 선택도 시장에 맡겨라.
10. 연필을 보라, 정부가 무어라 규정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나무를 베고 흑연 심을 넣고 고무지우개를
박고 시장에 내놓는다.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잘 나간다.
11. 이런 원리는 의료 건강 보험 등에도 적용된다. 무상 의료 보험 등 실패한다.
12.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교란하면 반드시 기업과 국가가 망하게 된다.

자유 시장경제가 되면 반드시 양극화가 생긴다.

아이러니: 양극화가 큰 나라가 대개 좋은 나라이다(미국 등).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 고아와 과부들

17 정부는 환경 사용과 환경 보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창1-3장

지난 15시간, 처음 13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들 살펴봄, 지난 2시간, 결혼, 이혼, 동성애 등 결혼 문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생명 윤리 문제, 오늘부터 환경 문제

환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1. 원래 창조 세계는 매우 좋았다(창1:31). 죄, 사망, 질병, 상해, 가시덤불, 엉겅퀴(창3:18) No!
참 좋은 창조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도 포함됨
이렇게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가꾸어야 했다(창2:15). 즉 잘 개발해서 유용하게 만들라. 창1:28을 성취하라.

2. 아담과 이브의 범죄, 저주가 내려짐

지금 세상과 환경은 원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저주(창3:17-19), 엄청난 변화

a.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등 여러 가지 유해물 포함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재해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각종 재난, 태풍, 홍수, 산불, 지진, 해일, 악한 짐승 등,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은 중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극단적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타격

즉 우리가 자연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

뱀으로부터 아이들 보호, 태풍을 막기 위해 방파제 설치, 냉동 공기 조화(자연 그대로 못산다)

물이 없는 곳에는 관개, 물을 대야 한다. 모기를 막아야 한다.

즉 자연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말라리아모기를 죽이는 모기약을 만들어 뿌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산불을 막으려면 죽어 있는 나무들을 치워야 한다.

사람에게 해가 없다면 병충해에 강한 벼를 만들어야 한다. 작물도 마찬가지로

또한 씨 없는 포도, 수박 얼마나 즐기는가?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연계에 무언가를 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계는 타락한 상태의 자연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계를 유용하게 개발해야 한다. 즉 자연계의 유해한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복하라, 지배하라의 의미

물론 환경의 유해한 부분들을 극복하려다가 잘못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 환경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즉 유해한 부분을 고치고 향상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즉 자연 환경 그대로 두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시대 극단적인 환경 보호자들의 문제: 자연 환경에 유해 요소가 있다는 것 부인

이러다 보니, 댐, 사대강 보, 주거지 개발, 교량 다 반대

사실 이런 사람들의 신은 지구 혹은 자연이다.

그러므로 유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매크로 스케일 개발(댐, 다리 등), 마이크로 스케일(유전자 변형) 변형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형도 마찬가지

b. 하나님은 지구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았고 거의 모든 것을 좋게 남겨 두셨다.

즉 현존하는 자연계는 전적으로 악하거나 유해하지 않다.

아담과 이브에게 전적으로 악한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고생하게 만드셨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땅에서 많은 작물을 얻고 가축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신

28:1-14).

음식(딤펴전4:4-5; 6:17)

c.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자연계가 원상복구 됨을 알려 주셨다(롬8:21).

사11:6-9, 35:1; 암9:13; 행3:21

앞으로 이렇게 완전한 세상이 오므로 지금 이 시대에 자연 환경을 잘 초쳐서 쓰는 것은 합당하다.

3.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지혜롭게, 기쁘게 지구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하신다.

창1:28,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말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자기들과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하라는 것

a. 타락 이후에 땅을 정복하는 것(시8:4-8)

땅을 갈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홍수 이후에는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하심(창9:3), 신약성경은 육식을 문제 삼지 않음(롬14; 고전8 등)

b. 극도의 환경 보호 주의자들, 심지어 쥐, 기니피그 사용 임상 시험 안 된다. 댐, 사대강 보, 원자력 발전소 등, 천성산 도롱뇽 사건(2003년, 연간 피해 2조 5천억, 2009년 대법원 방해 죄 인정, 다시 시작, 터널 뚫어도 여전히 도롱뇽 건재), 10조 이상 손해

미국에도 이런 사건이 많다. 캘리포니아, 샌 요아킨 골짜기 농부들, 미국 내 야채 제공하던 곳, 농업용수 필요, 조그만 방어류가 죽는다. 소송, 그 동네 실업율이 40%로 치솟음, 미국에는 사슴, 거위 등의 Road kill, 너무 많으면 문제, 우리나라 멧돼지

지구 자원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두려워한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비교도 안 하고

인간이 땅의 에이즈다. 현재 지구 인구 70억을 10억으로 줄여야 한다.

방사선 암 치료도 안 된다,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지구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려면 인구수를 제한해야 한다 등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지구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한다.

심지어 아담과 이브를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신다. 짐승을 죽여서(창3:21)

그러니까 무조건 가죽 코트 입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구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유물론을 따른 것이 아니다.

집, 병원, 학교, 공항, 도로, 각종 운송 수단, 냉장고,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성경적으로 문제없다.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사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없다.

오히려 북한처럼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부자 국가, 부자 개인들을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볼 필요 없다. 탐욕이 문제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다. 120년 전 미국 선교사들, 다 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 교육, 의료, 개화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

잠정적인 결론: 하나님은 사람들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땅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4. 하나님은 땅에 각종 자원들을 풍성하게 두셨다.

이것이 성경의 그림이다.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

범죄 이후 당에 여러 가지 해악이 들어왔으나 결국 다시 원상 복구될 것이다.

B. 현시대 지구의 자원

자 현시대 지구에는 과연 충분한 자원이 있는가?

1. 우리는 지구를 멸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의 공포: 양식을 재배할 땅이 부족할 것이다. 물 부족이 생길 것이다. 세차를 해야 하나?

a. 인구, b. 농지, c. 물, d. 공기, e. 쓰레기, f. 삼림, g. 멸종 위기, h. 해충, i. 수명
지금부터 말하는 것: 미국이나 선진국 중심에 본 견해

성경적으로 대부분 맞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지 않을 수 있다.

2. 우리는 장기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많은 경우 언론들은 단기 데이터를 사용해서 겁을 준다.

또한 많은 환경 단체들은 극단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겁을 준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든 지구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창1:31).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까지 이 땅에는 인간들을 위한 자원이 풍부히 있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자원 개발은 쉽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개발하는 것이 지구에 유용하다고 믿는다.

3. 장기적 데이터를 보면 지구 안의 사람들은 재림 때까지 번영을 누릴 것이다.

(*) Bjorn Lomborg, 회의적인 환경주의자(Skeptical Environmentalist), 540쪽, 2001년, 덴마크의 환경통계학자 정확한 분석

a. 세계 인구

(*) 1750년 7억 5천, 현재 70억, 20세기에 급격히 증가, 2200년 110억
급격한 증가 이유: 자연 개발, 음식, 물, 좋은 의료 기술 풍부, 수명 증가
인구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부자 국가들 인구 감소

b. 농업용 부지

지구에서 얼음 덮인 곳 제외한 면적 중 24%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 현재 우리는 이중 3분의 1 사용, 이 모든 면적 사용하면 180억 인구 식량 제공 가능, 또 동시에 단위 면적당 재배 식량의 양 증대

(*)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매일 먹는 양도 증가, 개발도상국은 먹는 양이 작다.

문제: 재배되는 곳이 미국, 캐나다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c. 물

지난 30년 동안의 발전, 개도국의 경우 깨끗한 물을 먹는 비율이 1970년대의 30%에서 2000년대의 80%로 증가함

지구 표면의 71%는 물이다. 이중 바다가 97.2% 차지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전체 물의 0.65%. 이 물 가운데 우리는 지금 17%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 물이 어떤 시즌에만 많이 온다. 각오 오염물질이 늘어나고 있다.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잘 관리하고 쓰면 문제없다. 담수화 플랜트 필요, 저수지, 댐, 4대강 보 필요

d. 깨끗한 공기

저자의 이야기: 어릴 때 자동차 길 옆, 매연 때문에 숨쉬기 어려웠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데 드물다. 공해 방지 제도(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 경제가 발전하면 모든 국가의 환경이 좋아진다.

(*) 런던 이황산 가스, 스모크 400년 데이터(1585-1994)

(*) 경제가 발전하면 이황산 가스가 늘다가 다시 줄어든다.

e. 쓰레기 문제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선진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매립되고 있다. 매립지 자체가 쓰레기는 아니다. 지금의 난지도를 보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위 면적 당 쓰레기 매립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 쓰레기를 좋은 용도로 쓰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f. 전 세계 삼림

과연 나무는 충분히 있는가?

지구 육지의 3분의 1은 나무로 덮여 있다 지난 60년 간 변함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농업이 확산되면서 원래 삼림 면적의 20%가 개발됨. 그러나 현재는 이대로 유지됨

세계의 허파인 아마존 같은 지역의 황폐화가 문제, 매해 0.5%씩 삼림 훼손되고 있다.

g. 종의 멸절

몇 종이 살고 있을까? 200만-8천만 종(벌레,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대규모)

1600년 이후 멸종된 것: 총 160만 종 가운데 1033개, 0.06%

이처럼 작은 비율이지만 이 작은 비율의 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보호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종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h. 해충 문제

실제로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해충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i. 수명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있는가?

(*) 400년간 영국 사람들 평균 수명: 38세에서 78세

180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함, 산업화

(*) 선진국의 수명이 개도국보다 15-20년 정도 길다.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약 10-15년 차이

C. 에너지 문제

결론: 아직도 인류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에너지 있다. 미국의 경우 셰일 가스 개발, 200년 더 간다.

에너지 남용: 공해 유발

D.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문제

논쟁이 있다. 빙하가 녹는다. 다만 이것이 지구의 사이클 문제인지 실제로 이산화탄소 문제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보존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환경 문제 결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구를 개발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다.

처음 환경과 타락 이후 환경은 다르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난 3-400년 동안의 경제 개발, 인간의 수명 2배 늘어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는 아직도 우리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사람들이 오남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로 미국인 관점에서 본 것이다.

한국과 같은 인구 밀집 국가는 전 세계 추세와 다른 면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지혜롭게 기쁘게 개발해서 써야 한다. 4대강 보, 원자력 발전소, 교량, 터널 등

16 국가는 언제 어떻게 정의로운 전쟁을 해야 하는가?

성경말씀: 출20

지난 17시간, 13시간 성경과 정치에 관한 기본 원리를 살펴봄, 최근에는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 결혼, 이혼, 동성애,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경제 제도, 사유 재산권, 환경문제: a. 인구, b. 농지, c. 물, d. 공기, e. 쓰레기, f. 삼림, g. 멸종 위기, h. 해충, i. 수명

오늘은 국가 안보에 대해 특히 병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문제

다른 나라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서 싸우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전쟁에는 인명 피해가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도 있다. 특히 이슬람 세력, 핵무기 사용?

A. 성경의 가르침

1. 다른 나라가 공격할 때 정부는 반드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 악을 행하는 자를 색출하여 징계하는 것

그래야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추가 악 방지(롬13:3-4; 벰전2:14)

정부는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과도 싸워서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부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시리아의 공격에 맞서 싸운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국가 보호

그러나 불순종하면 국가 약탈, 심지어 포로 생활, 사사기(삿2:13-15)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경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반복됨,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 십계명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출20:13)

KJB 등에는 kill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명령은 고의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쟁하며 적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신다(신20:1). 모순이 없다.

눅3:14, 침례자 요한, 군사들에게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라. 예수님 당시 백부장,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식민지,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신다.

B.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미국은 원래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남기 원하였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일본의 진주만 기습, 참전, 그 이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등 계속 전쟁

이 세상에서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러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전쟁하지 않는다.

기준이 있다: 정의로운 전쟁(just war), 이런 개념은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1. 전쟁의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아야 한다.

2.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조그만 그룹이 아니고,

3. 상대방 국가의 침략 원인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이유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4.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실현이 목적

5. 모든 것을 시도하고 맨 마지막 수단

6.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7. 예상되는 결과 확신, 8. 바른 정신으로 하는가?

9. 필요 이상의 무기 사용 금지, 10. 상대방 군인과 시민 구별, 11. 포로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12. 전쟁의 결과 상대방과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C. 평화주의

교회 역사 상 정의로운 전쟁관이 대세, 그러나 소수는 정대 싸우면 안 되고 무조건 평화 협상(Pacifism)

그리스도인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국이 침범을 당해도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군대에 가면 안 된다. 메노나이트, 대천덕 신부

이것은 “모든 정부는 마귀의 정부이다”를 주장하는 그레그 보이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다.

대개 좌익: 극단적 환경 보호론자와 비슷하다.

보이드는 결국 정부가 공권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누르고 다스리는 것은 세상적이라고 말하면서 거부한다.

“세상의 모든 정부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누르고 다스리는 체계이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스트, 전체주의 정부 등 세상 왕국들의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다.”

보이드는 이것을 ‘검으로 누르는 파워’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 검으로 누르는 파워는 위협으로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기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검으로 누르는 파워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롬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워를 사용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웃 사랑 명령(마22:39). 이것을 실천하려면 나라를 침범하는 다른 나라를 격퇴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

무조건 전쟁을 피해야 한다: 옳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전쟁을 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2차 세계 대전, 독일의 나치 히틀러,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여러 국가 멸절

이를 막기 위해 영국과 미국 등 연합 전선

마귀의 히틀러 독일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마귀의 영미 연합 세력 등장

히틀러 세력이나 영미 세력이나 도덕적으로 보면 같은 수준

예를 들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 수많은 사람 죽음

결국 미국 정부는 테러분자들을 없애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 선포

보이드의 견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나 이들을 격퇴하려는 미국 정부는 다 마귀의 세력

그 높이가 그 높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한국 전쟁 발발, 소련과 중국 그리고 김일성 세력과 이승만, 트루만, 연합군 세력이 도덕적으로 같다.

그러면 그 싸움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자유와 번영, 이것이 나쁘다는 말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의로운 가치를 들고 적들을 쳐부수는 세력이 있다(연약함,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견해; 인간 정부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다(롬13:4).

보이드의 견해를 따르면 9.11 테러를 일으킨 자들이나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군인/경찰이나 차이가 없다.

국가는 힘이 있어야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둑은 말로만으로는 퇴치할 수 없다.

김정은, 시진핑 하는 것 보라.

문재인 정권의 안본 파괴: 2018년 9월 19일, 평양 군사합의 1) 서해 및 지상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사격훈련 및 기동훈련 금지, 2) 비행금지구역 확대, 3) GP 철수, 4) 서해 평화수역 설정

가장 중요한 것: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

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km,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북한의 약점: 공군력이 약하다. 강점: 방사포, 장사정포 등 순식간에 쏠 수 있다.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 아파치 공격 헬기, 무력화, 아파치 헬기 북한군 특수 부대 침입 방지

D. 미국의 국방 정책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악이 있기에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1. 20세기: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카스트로, 호치민, 후세인, 카다피 같은 자들이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히틀러, 힘이 없으면 절대 제압하지 못한다.

2. 21세기: 북한의 김정은, 시진핑, 푸틴, 아사드, 차베스, 마두로 등이 있다. 남미에는 사회주의 세력

3. 동맹국들이 있다. 현재 미국은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 경쟁할 나라가 없다. 최대 방위비

이런 비용을 지불하기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나토 국가들, 한국, 대만,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결국 한민 동맹 와해

4. 인권 자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가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에 힘
이번에 홍콩 사태: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결국 범죄인 송환법 철회
지금 현 세상의 평화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
김정은이도 마찬가지

5. 미국 민주당의 문제: 카터 오바마 때 방위력 약화

E. 이슬람 테러 문제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9.11 테러 사건, 보안검색 강화, 이민 규제 등
다른 대책이 없다. 가능하면 격리하고 안 들여 놓아야 한다. 인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뀐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집단
시리아 난민 사태, 전 유럽이 초토화되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결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정부를 세워야 한다.
힘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19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의 영적 의미와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 성경말씀: 출19-20

지금까지 웨인 그루템의 성경과 정치, 원리와 적용

오늘부터는 근대 사회의 헌법의 기초가 된 십계명을 살펴보고 한다. 영적 의미와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 Prager University, Dennis Prager, 유대인

세상이 좌편향 되다 보니 보수 우파의 올바른 시각을 전하기 어려움

그래서 서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보수적 가치(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를 전하기 위해 2009년 프래저가 설립. 5분짜리 좋은 동영상(개당 25,000-30,000달러), 어떤 것은 수백만 명 청취 현재 755개 영상, 231만 구독자, 대부분 한국말로도 볼 수 있다.

Prager Univ 안에는 십계명에 대한 영상들이 있다. 열 가지 명령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의미 설명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좋은 성도, 근대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 도입부 및 10가지 명령 설명, 하루에 2개 정도씩(영적인 의미+데이스 프래저)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구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창조, 죄, 타락, 사망, 마귀와 죄에 속박이 됨

출애굽기: 속박에 갇힌 사람을 해방함

레위기: 해방된 사람이 예배하는 것, 민수기, 신명기: 구원받은 성도들의 불순종, 사망, 경고

왜 십계명을 공부하는가?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절대적인 윤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십계명 만들 하나님어 어디 있어? 모든 것이 진화했는데. 안 걸리고 흠치면 되지. 아내 몰래 외도하면 어때? 일 안하고 살면 어때? 사회가 도와줄 텐데.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규칙들을 만든다. 절대적인 가치와 규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인식 못함, 그래서 인간의 규칙은 하나님의 것과 갈등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 한다. 그런 규칙들의 표준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나 이 규칙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 국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대표적인 경우: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대한민국

여기서 벗어나면 인간이 불행해진다. 억압과 학대를 당한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다. 북한, 베네수엘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상, 이슬람 세상, 중세 천주교 현시대 남미의 천주교 해방신학 사회

현시대 문제: 교회 안에도 십계명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 죄의 목사, 성도들도 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 인간은 부족하며 절대자가 세상 역사를 지배한다. 사람은 겸손히 살아야 한다.

오래된 전통 중시 보존, 어디서 오는가? 십계명 즉 하나님의 법에서 온다. 진보: 하나님이 없다.

인간 힘으로 세상을 고칠 수 있다. 그것도 단시간에 혁명을 통해,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름

왜 십계명을 알아야 하는가?

데니스 프래저의 말 소개

세계 역사상 어떤 문서나 법규도 십계명보다 세상을 더 좋게 바꾸지는 못했다. 세계적으로 인권을 발전시킨 서구 문명은 여성 평등을 구현하고 노예 제도를 종결했으며 여러 가지 중요한 업적 가운데 의회 민주주의 즉 법치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서구 문명은 십계명 없었다면 결코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십계명의 10가지 명령을 설명하면 알게 되겠지만 이 명령들은 3500년 전에 처음 주어졌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 열 가지 명령은 너무나 합당해서 사실 이것들만 제대로 따르면 폭정과 잔악함이 없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가 없는 세상을 잠시 상상해보자. 그런 세상에서는 군대나 경찰 또는 무기가 필요 없을 것이다. 남녀노소 모두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밤이든 낮이든 어느 때나 죽임당하거나 강탈당하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하지 않는 세상을 더 상상해 보자.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이 번성하며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세상,

이 숭고한 십계명 안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든 비법이 들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십계명은 어떤 사람, 어떤 왕, 어떤 정부보다 높은 권위를 가진 분에 의해 주어졌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인 출20: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약 이 위대한 십계명이 어떤 인간의 권위에 의해 주어졌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모세,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왕이 누구야, 이 여왕이 누구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에게 명령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야“

왜 하나님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까? 살인이 심각한 죄이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살인은 큰 죄가 아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은 이런 명령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설명 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저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 믿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이 잘못이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대답은 반만 진실입니다. 당신이 무신론자이면서 살인이 잘못이라 믿는다고 말하면, 살인이 잘못이라고 당신이 믿는다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 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 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살인이 죄라는 알아냈다 해도 하나님과 십계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죄인지 알 수 있나요? 그것이 죄라고 믿는 것 말고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실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옳고 그름이란 그저 개인의 믿음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개인의 의견들이다. 나는 상점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괜찮다고 믿고 당신은 괜찮지 않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도덕과 윤리는 단지 의견과 믿음일 뿐이다. 사실 거의 모든 무신론 철학자들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살인이 죄라고 당신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먼 역사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20세기에 공산주의와 나치 사회에서 약 일억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의 당사자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높은 권위 없이도 인간의 능력만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너무 확신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정부나 선동가 또는 이념에 의해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범하는 잘못이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는 합리화를 통해서도 믿음이 바뀔 수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당신이 알아냈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이 항상 나쁜 짓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를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도덕법의 근원임을 당신이 안다면, 그분이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록 무신론자라도, 당신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도덕법에 따라 살기를 원할 것이다.

지난 3,50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인 십계명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없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로마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말씀: 출19-20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인 기준 혹은 법,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법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기슭에 모여 있었다. 출19장은 영광과 위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을 죽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했다.

이들은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그것은 모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다(사42:21).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신다(출20:2).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나라.

이 말씀은 십계명의 도입부. 법을 보기 전에 법을 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LORD).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영원히 존재, 그분을 만든 존재가 없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온다. 바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심
2. 네 하나님, 우리 모두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회계 보고해야 한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3. 구속자 혹은 구원자이시다.

바로 이 점을 부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열 가지 명령을 주신다.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나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

4. 그분에게서 나온 법은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법을 만드는 분의 모든 것 정부의 법: 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 쉽게 접근하도록 휠체어 장치 나르는 것, 휠체어 길을 만든다. 이 법은 무엇을 말하나: 장애인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데니스 프래거의 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나라.

이 구절의 몇 가지 의미:

첫째,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음을 확정한다. 모세나 다른 어떤 인간이 이 명령들을 주는 것이 아니다.

둘째, 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노예 생활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인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지 않았다. 모세도 아니다. 따라서 당신은 구원자 하나님께 대해 의무가 있다. 그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열 가지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것은 윤리적 유일신교(Moral monotheism)로 알려지게 된 유대교 헌법의 시작이다. 성경의 바로 이 구절은 세상을 가장 크게 변화시켰고 우리는 그것을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1. 윤리적 유일신 체계는 한 하나님- 유일신 - 이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규칙이며 이것은 인간의 의견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그래서 인간의 의견을 초월합니다.
2. 윤리적 유일신 체계가 주는 다른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십계명 어디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계명 이전의 종교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은 그 신들을 먹이고 심지어 그 신들을 위해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십계명 덕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우리 동료 인간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이것을 배우게 되었다. 거짓 신들을 두지 말라는 명령 그리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도 궁극적으로는 도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속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건강한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자기 자녀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첫 번째 명령 즉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네 [하나님]이니라.”가 주는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말한다. 이것은 천부적 인권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도입부에서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는 온 세상을 만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꽤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 너는 내 말 듣는 게 좋을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언하신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종살이로부터 빼내어 자유를 얻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노예 상태로 지내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며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세우면서 가졌던 총체적인 견해는 바로 이 믿음이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 바로 이 믿음이 미국 건국의 뿌리 그 이후 나온 모든 자유 헌법의 뿌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들의 자유 제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 독립 혁명의 상징은 자유의 종(Liberty bell)입니다. 그 종에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온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너희는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레25:10), 여기의 자유는 리버티이다. 해방의 자유 그러나 십계명의 첫 부분이 말하는 자유에 관해 동일하게 중요한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사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도구이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없다. 자유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것 외에 자유를 달성할 방법은 없다.”

네 번째 마지막 교훈은 자신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을 심히 사랑하심을 분명히 보여 주셨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창조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교훈이 십계명이 시작되는 첫 부분의 서술에 담겨 있습니다.

리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3-6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 함께 나누어야 한다. share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떤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 있다. 비밀을 지켜야 하는 문서, 과자 조각 등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기를 원하지만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 공물을 풍성히 베푸시지만 영광과 찬양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사..)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명령인 출20:3의 의미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명령, 다른 명령들 앞에 주어진 것

즉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의 창조자이므로 나는 어떤 존재와도 내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 생활: 여러 종류의 신들, 특히 아피스 황소 숭배

거기서 이들은 동화되어 그런 신들을 섬김, 결국 시내 산 근처에서 그런 신을 섬김

열 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한 것(민33:3)

기독교 유대교의 유일신이란 무엇인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즉 유일하게 한 하나님이 계신다. 둘, 셋, 넷이 아니라 오직 하나이다(사45:21; 고전8:4)

자 실로 신들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교도들이 신들로 여기는 존재들이 숭배자들에게 영적 파워를 미치기 때문이다.

사실 신들이 아니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 갈4:8, 사람을 무지와 속박에 넣는 신들

‘내 앞에’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를 뜻한다.

우상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그게 아니면 경배가 아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다. 왕국, 영광, 영적 지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왕상9:4-7)

그러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왕비들을 둬으로써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천천히 변화가 생겼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시험: 1.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탐하는가)? 무엇으로 인해 흥분하는가? 돈, 명예, 지위...

2.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나님 이상으로 누군가를 무엇을 신뢰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신이다.

4-6절은 둘째 명령이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마리아, 부처 등 사람들을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살 수 있다. 듣는 것은 믿음 요구

바울의 아테네 여행(행17), 온 도시가 신들 숭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천주교는 이것을 제거하고 10번째 명령을 둘로 나누어 버렸다.

데니스 프래거의 설명

3절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두 번째 명령인 4-5절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 명령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고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것 즉 비를 내리는 신, 다산의 신, 다른 모든 자연 신들과 로마의 주피터나 그리스의 제우스 같은 최고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단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둘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제우스나 주피터 같은 신들을 숭배하지 않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령이 현시대 사람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명령은 현시대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명령은 다른 모든 명령의 근원이 됩니다.

왜 이 명령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대만큼이나 많은 거짓 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명령이 다른 모든 명령의 근간일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짓 신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좋은 세상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거짓 신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짓 신이 무엇인지 정의해 봅시다. 성경적 유일신 사상의 핵심은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므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한 하나님은 하나의 인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같은 창조자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가 됩니다.

둘째, 부모가 같다는 것은 어느 사람 또는 어느 그룹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그룹보다 본질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셋째, 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도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인을 잘못이라 선언하시면 살인은 누구에게나 죄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도덕적 기준을 찾기 위해 다른 신에게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을 숭배할 때는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권력이나 인종 숭배, 돈이나 깃발 숭배 같이 분명히 악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항상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 예술, 교육 또는 심지어 사랑까지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멋진 것들도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술을 보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음악 애호가로서, 위대한 음악이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악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젊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할리우드 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그의 고전적인 1971년도 영화인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그것을 보면 클래식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동안 남자들이 강간하고 살인합니다.

교육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교육의 중요성을 압니다. 일자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계를 이해하는 일까지 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그 자체가 하나님과 선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떠나면, 종종 사람들을 더 큰 악으로 이끌 수 있고 또 이끌어왔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구 세계에서 소련 스탈린의 학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중국의 마오쩌둥 지지자들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단지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친절하거나 더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것은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사랑은 종종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 역시 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하나님과 선에 대한 사랑보다 더 높이 두었던 사람들이 종종 끔찍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애완동물과 낯선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며 따라서 아마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 둘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먼저 애완동물을 구할까요, 낯선 사람을 구할까요? 글썄요, 만약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당신은 당신의 애완동물을 구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간의 생명을 사랑보다 더 높이 여긴다면 당신은 사랑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이 명령은 성경과 십계명의 윤리적 혁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윤리적 유일신 체계를 말합니다. 십계명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거짓 신들을 섬긴다면 아무리 그것이 고귀하게 보이고 들릴지라도 당신은 잔인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권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7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다.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요한 일,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어 준다.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권위의 행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 준 존재가 없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시고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이름, 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출3:14-15), 신성한 네 글자, JHWH 테트라그라마톤 주 여호와와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체를 나타낸다. 다윗 시8:1

이름은 곧 창조자 그분을 말한다. 이집트 탈출의 의미: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시106:8)

7절: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잘못 이해, 주라는 이름이 7,000번이나 성경에 나온다.

의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그분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것

구약 시대: 1. 마술할 때(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효력이 있다), 2. 거짓 대언할 때, 3. 거짓 맹세할 때, 이 모든 경우 자기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헛되이 취한다.

레위기 24장 사건(13-16)

사도행전 19:11,12의 바울의 기적들,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사건(19:13-16)

그 결과 17-19절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고 바르게 취하면 그분께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가지고 다닌다.

구원 받은 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미국 사람들 욕할 때 Jesus Gee 사용, 안 된다. What the heck? 무슨 소리야? Oh my God 주의 이름 오용: 주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에게 이것을 말해 주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대언이다.

목사가 일 추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밀어붙인다.

“Praise the Lord” 쓸데없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것도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지적(마7:21-22)

데니스 프래거의 설명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다 죄일 뿐이다.”라고 종종 표현합니다. 이런 견해를 견지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볼펜, 연필 한 자루 등을 훔친 사람의 죄나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하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어떤 죄들은 분명히 다른 죄들보다 더 나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만큼 상식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무실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과 살인을 절대로 같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죄일까요? 최악의 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은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면 그분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합당한 이유 없이 말하는 것을 금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어요!”라고 하는 것 등이 셋째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정말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다른 명령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살인을 범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과 십계명을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늘 그러하듯이 명령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번역입니다.

기존 성경: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은 “부르지 말라 (do not call)”가 아니라 “가지고 다니지 말라 (do not carry)”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말은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지고 다니지 말라”를 뜻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역본들 중 하나인 NIV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do not misuse)”고 말합니다. 즉 ‘취하다’(take), ‘가지고 다니다’(carry)는 말은 의역하면 NIV처럼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misuse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다 혹은 일컫다보다는 오용하지 말라는 것이 원문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취하다” “가지고 다니다”, “잘못 사용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과 기독교 혹은 유대교에 큰 오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할 때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자기들 신인 알라의 이름으로 범하는 고문, 자살 폭탄 투척, 참수 살인, 대량 학살 테러 같은 악이 바로 이런 종류의 죄입니다. 알라라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범죄로 인해 얼마나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것이 훼손됩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911 미국 공격 이후에 새로운 무신론이라 불리는 무신론자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생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과 기독교 혹은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주장은 세상의 많은 악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알라라는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중세 암흑시대에는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희생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죽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은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3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안식일을 지키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8-11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러나 사람이 성장해서 직업, 가정, 어쩌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일, 잠, 가족 시간, 예배, 기도, 성경 읽기, 휴식, 여행 등). 그래서 늘 시간이 부족하다., 일주일에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 일중독이 되는 사람이 많다.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다. 하나님의 해결책: 일 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쉬어라. 즉 옛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안식일을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면 생산적이지 않다.

빌 게이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시간이라는 자원을 쪼개서 써야 하는데 종교 생활은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주일 오전에 생각하고 처리할 일이 매우 많다.

자 출20:8-11을 살펴보자.

10개의 명령 중 가장 길다. 8절 안식하라. 9-10, 어떻게, 11절 이유

1. 안식일을 기억하라. 시내 산에 오면서 만나를 받음,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 그 전 날 두 배(출 16), 그래서 매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안식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한다. 생일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

2.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그리할 수 있는가? 9절, 일단 우리는 옛새를 일해야 한다. 이 세상의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의 생각: 일은 힘들다. 좋지 않다. 그러나 아담은 에덴동산에서도 일을 했다(창2:15). 죄를 지은 이후에는 부과되었다(3:17). 네 번째 명령은 6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줌, 6일은 너를 위해 쓰고 하루는 나와 네 혼을 위해 쓰라.

‘거룩하다’의 의미, 분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 떼어 놓는다.

레위기 23장,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의 날(23:3)

동시에 우리는 영혼육의 안식을 취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다(민15:32-36), 안식일에 나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쉬어야 한다. 심지어 짐승도 쉬어야 한다.

3. 이유: 하나님의 6일 창조(11)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규정은 모세 당시에 세워진 규정이 아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다. 창2:2-3

4. 또 하나의 이유(신5:15)

이집트 탈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남

5.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안식일 규정 위배(느10:31; 13:15-16)

6. 안식일 규정은 주님의 부활과 함께 바뀌었다. 더는 율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창세 때에 주어진 규정,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 날 하루를 쉬며 그 날 예배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첫 날 저녁 애찬, 예배, 교제(요20:19; 행20:7; 고전16:2)

즉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날, 음식 등에 대해

안식일의 예표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지금은 실체가 작용하는 시간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각 사람이 양심에 따라 하면 된다.

데니스 프래거의 설명

유대교 신자인 프래거가 말하는 안식일 준수는 1주일에 하루를 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현 시대에는 십계명의 10가지 명령들을 존중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 네 번째 명령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명령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

안식일 준수 명령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까지 바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삶에도 이 명령이 얼마나 유효한지 알고 감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출20:8-11에 나오는 네 번째 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네가 수고하고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주} 네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하는 네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이 명령이 그리 중요할까요?

첫 번째, 다른 모든 명령보다, 이 명령은 인간을 높여 줍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인간 역사에서, 인생은 압도적으로 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 즉 오직 이 명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1주일의 7일 중 하루는 일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두 번째, 다른 명령보다, 안식일 준수 명령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존재로 지어졌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버전으로 모세가 신명기 5장 15절에서 요약한 것을 보면 “네가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떼 내어 안식할 수 없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성경적 관점에 하나를 추가하려 합니다.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주 7일 동안 매일 일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노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일이나 돈의 노예일 것입니다. 여하튼 노예입니다. 매주 7일 동안 매일 일하는 백만장자는 간단히 말해 부유한 노예입니다.

셋째, 성경은 노예제도를 모든 곳에서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안식일 준수 명령은 매우 끔찍한 이 제도를 인간적인 제도가 되게 하였고 후에는 심지어 노예제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예 제도의 정의상, 노예의 주인은 노예가 쉬도록 허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1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명령은 정확하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노예라도 근본적인 인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노예도 인간입니다.

넷째, 안식일은 가족들의 유대 관계와 우정을 만들고 그 관계를 강화합니다. 사람이 1주일에 하루를 쉴 때, 그날은 거의 피할 수 없게 다른 사람과 보내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도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일 중독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일 중독자가 한 주에 하루는 일하지 않았었다면 그들의 결혼이 얼마나 좋았을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당신은 안식일의 효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안식일 명령은 심지어 일하는 짐승에게도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가축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이것은 역사상 동물을 위한 국가의 법으로는 최초의 법입니다. 이 명령이 동물에게 주는 유익은 분명 동물이 일주일에 하루 의무적으로 쉬는 것 이상입니다. 자기 가축에게 하루 쉬는 날을 주는 것을 신이 명령하는 의무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기의 짐승을 일주일의 다른 날에 덜 잔인하게 즉 더 친절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 명령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다섯 가지 유익은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익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유대인이거나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은 곧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는 안식일에서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안식일 준수로 데리고 오듯,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 준수와 관련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 말들로 끝을 맺습니다. “11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당신은 6일에 대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생명도 의미 없는

우연의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생명이란 한이 없이 의미가 있고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는 특별한 소중함과 목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하나로 안식일 준수 규정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이야말로 더욱 풍성하게 가족과의 삶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침착하고 친구들이 많고 심지어 더 건강하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 명령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네 부모를 공경하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2

원래 미국은 기독교 사회, 부모와 권위에 순종, 1960년경부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함, 가족의 붕괴 그런데 가족의 붕괴, 사회의 붕괴, 국가의 붕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다섯 째 명령,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열 개의 명령: 앞의 4개, 하나님과의 관계, 뒤의 6개: 사람들과의 관계, 이중 첫 번째 부모 공경 즉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가족) 관계이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네 개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5번째 명령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공경하다’의 의미: 히브리말의 의미 ‘무겁다’.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말이 사용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들을 무게 있게 위엄 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이다.

부모를(부모의 말을)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다.

무서운 말씀(레20:9; 신21:18-21)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범하고 있다.

신약성경, 마지막 때의 증거(딤후3:1-2)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도 공경해야 한다(잠6:20). 고대 세상에 이런 규정은 없었다.

왜 공경해야 하나?

1. 그들의 희생, 2. 그들의 경험, 3. 하나님께 영광

4. 직접적인 이유: 잘되고 장수한다(출20:12). 약속 있는 첫째 명령(엡6:2)

아이들이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보상을 주심

특히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행복, 장수를 하려면 부모에게 순종 필요

이 약속은 모두에게 100% 적용 아니다. 부모를 공경해도 일찍 죽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법칙

5. 부모의 책임: 아이들을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일 불가능

6. 이 명령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즉 존귀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롬13:7). 이것은 좋은 사회의 근간, 심지어 교회의 리더들도

부모들이 해야 할 일: 교육과 훈계, 기도, 격려, 상담, 보호, 필요 충족. 경건한 본, 좋은 교육(결혼, 직업, 부모 역할 등), 성경 교육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 부모에게 말대꾸하는가? 무엇을 숨기는가? 몰래 저주하는가? 부모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가?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는가? 부모를 잘 대접하는가?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에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지 않는가(요19:25-27)

데니스 프래거의 설명

십계명의 다섯째 명령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20:12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이 명령은 심히 중요한 것이어서 전체 성경에 나오는 명령 중 오직 이 명령에만 이것을 지켜야만 할 이유와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들이 길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섯 번째 명령의 뒷부분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읽습니다. 물론 보상으로 보아도 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를 당신이 만들면 그 사회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 자멸하게 됩니다.

요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문명을 지속하는 것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잘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오히려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권위를 가진 존재가 되어야 가능한데 현대의 많은 부모들은 이런 개념을 거부합니다. 더욱이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기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포함해서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을 볼 때 이것은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심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심을 보일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요구를 오직 부모에 대해서만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떤 존재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십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어길 때 그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첫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로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경 받지 못하는 아빠와 엄마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녀들의 친구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오늘날 바로 이것이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어느 세대도 우리 세대만큼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의 무서운 결과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남자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난폭한 범죄를 범하고, 여성을 하대하고,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공경할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여자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성적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도덕적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 즉 우리를 뛰어넘는 도덕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도덕적 사회를 만들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궁극적인 도덕적 권위는 하나님이며 실로 그분은 우리 부모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 특히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의학의 아버지이자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대개 형성되어 감을 이론화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는 사악한 체제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전체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자들이 시행하기를 원하는 일들 중 첫 번째 일은 부모와 자녀의 연대를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충성심이 부모에게서 국가로 바뀝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정부가 더 커질수록, 부모의 역할을 더 많이 빼앗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듯 부모에게 말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는 욕설을 사용할지 몰라도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집을 떠나 당신의 가정을 만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연락해야 합니다. 부모와 연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는 너무 잔인하게 행동해서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흔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부모에게 불손증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신 아이들이 보면, 어떨 때는 그것이 심히 어렵지만 언젠가 그들이 당신을 공경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25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너는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3

현시대 미국인들은 십계명을 무서워한다. 그 안의 모든 명령들을 무서워한다. 모든 공공건물에서 제거

첫 번째 명령: 다른 신을... 네 번째 명령 안식일 준수, 일곱 번째 명령 음란과 간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섯 번째 명령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본성의 법칙에 위배된다(문화, 인종 상관없이).

그럼에도 실제로 사람들은 크게 살인을 범하고 있다.

합법적인 죽임과 비합법적인 죽임

여섯 번째 명령: 가장 짧다. 여기서 말하는 죽임(killing)은 무엇인가?

죽이다(kill)에 해당하는 히브리말 8종류, 여기에는 ‘랏자크’(ratzach)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군대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범법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원래 뜻 ‘산산조각으로 부수다’

사형 집행, 군대에서 죽이는 것 등을 표현하는 히브리말은 따로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Thou shall not kill.” 1611년 당시 kill은 원어 그대로 ‘산산조각 부수다’,
즉 ‘살인하다’를 뜻한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이다. ‘죽이지 말라’가 아니다. ‘죽이지 말라’의 왜곡 나중에
살인: 미리 고안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피 도시 제도를 만들었다(신4:42).

여섯 번째 명령 의역: ‘너는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성경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취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다. 1. 자기와 가정 보호, 2. 국가 보호

강간하러 들어오는 남자 살인

전쟁은 두려운 것이라 자주 의존하면 안 되지만 더 큰 두려움을 피하려면 해야 한다.

2001년 9.11 세계 무역 센터 테러(약 3000명 사망, 6000명 부상)

평화주의자들의 주장: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 사람을 죽이면 그런 테러를 일으킨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게 무엇인가?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것을 가져오므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

성경의 견해: 의로운 전쟁이라면 해야 한다. 그 경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없다.

정의로운 전쟁:

1. 전쟁의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아야 한다.
2. 국가가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조그만 그룹이 아니고,
3. 상대방 국가의 침략 원인과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이유 비교, 우위에 있어야 한다.
4.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실현이 목적

죽이는 것이 합당한 경우: 사형 집행, 개인이 개인을 죽이는 것과 국가가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다르다.

사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구약의 원리, 신약도 마찬가지(롬13:4), 개인의 복수는 금하지만(롬12:19), 국가의 집행은 OK

요약: 모든 죽임이 불법은 아니다. 어떤 죽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죽이는 것이 합당한가? 생명을 보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된다.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빼앗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악한 자들과의 전쟁, 사형 집행에 적용된다.

노아의 홍수 이후 사형 집행 제정(창9:6)

생명이 소중하므로 불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기 생명을 빼앗겨야 한다.

여섯 번째 명령: 하나님은 생사의 주관자, 생명의 창시자, 보호자

미국은 총기 소유: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흑인 촌 매일 살인 사건, 총기 사건

원인: 사악한 마음, 대중 매체의 발달, 영화의 발달, 자살을 유발하는 사람들, 매체들

특히 수많은 아이들 불법 낙태: 조용히 살인하는 것, 2010년 통계, 연 34만회, 95.6% 불법, 전국

산부인과 80% 낙태 수술, 96%가 12주 미만, 2017년 통계 하루 3,000명, 약 백만 명, 인구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 헌법재판소 낙태 허용
뉴에이지 추구하는 자들: 인구가 많다. 불필요한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 인구 감축 프로그램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첫 번째 죄: 가인의 아벨 살해

눅10:33-35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

이러려면 사회 시스템이 바로 서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살인이 너무 쉬워진다.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은 숙청, 살해, 지난 10년 동안 1억 명 이상 살해됨

데니스 프래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의 여섯 번째 명령은 모든 명령 중 설명이 거의 필요 없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너는 죽이지 말라”(Thou shall not kill)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Kill”을 ‘죽이다’로 해석하여 어떤 것도 죽이지 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명령은 아마 십계명 중에서 가장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명령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너는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히브리어와 영어 모두 생명을 빼앗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히브리어로는 harag)이고 다른 하나는 “살인하는 것”(히브리어로는 ratzach)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죽이는 것(killing)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1)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든 빼앗는 것
- 2)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빼앗는 것
- 3)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나 비도덕적으로 빼앗는 것

반면에 살인은 이 셋 중 단 하나만 의미합니다.

1. 살인은 고의로 불법적으로 또는 비도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기를 죽였어.”라고 하지 “내가 모기를 살해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사고로 죽었어.”라고 하지 “노동자가 사고로 살해되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킹제임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murder)대신 “죽이지 말라”(kill)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400년 전 번역이 될 때는 kill이라는 단어가 “살인” 즉 murder와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부 사람들은 영어의 의미가 1611년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계명이 모든 죽임을 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모든 죽임을 금지했다면 우리는 다 채식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 역시 금지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평화주의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도 적군을 죽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십계명이 모든 죽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십계명이 포함된 성경의 바로 그 부분 즉 모세 5경이나 유대인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토라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로 바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어 단어 의미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 명령을 “살인하지 말라”(murder)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 반대와 평화주의라는 두 가지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킹제임스 번역을 인용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금하는 계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형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5경의 다섯 책에 나타나는 유일한 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형 반대자들은 모든 살인자들도 죽지 않고 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항상 십계명에서 kill이라는 단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무조건 “죽이지 말라.”를 인용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매우 분명하게 밝혔듯이 그것은 십계명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지요. 평화주의 즉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항상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살인자가 극장이나 학교에서 여자와 아이들 같은 무죄한 사람들을 살인할 때에 그 살인자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도덕적, 불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살인자들을 살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평화주의를 정당화하려고 살인에 반대하는 십계명을 인용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도덕적인 죽임이 있습니다. 침략자에 대항하여 자기와 가족을 방어하는 경우 이것은 매우 도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비도덕적인 죽임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살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 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 판에 기록된 여섯 개의 명령은 모두 우리의 동료인 인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지난주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살인은 인간이 자기 이웃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네 명령-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 등도 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가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고의적으로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방어를 위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죽임과 비도덕적인 살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형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 시 전쟁을 해야 한다.

26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너는 간음하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4

결혼에 대한 오해: 종교 개혁 이전에는 남녀 간의 섹스란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치부되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종교 개혁은 심지어 부부간의 성생활에도 성경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성경의 성에 대한 이해: 남성 여성은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시대의 특징 성을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 이행에 필수(창1:28), 하나님이 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주선하고 주례를 서신다(창2).

솔로몬의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합 묘사

간음(Adultery)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결혼한 부부가 신뢰를 깨는 것이다. 결혼 언약의 결속력을 깨는 행위

그러므로 이 명령의 핵심은 결혼 보호, 간음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죄, 그래서 음행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옴, 그래서 죽음의 심판(레20:10)

그런데 대개 간음은 곧바로 시작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조심해야 한다. 즉 유혹을 피해야 한다.

다윗과 밧세바의 경우를 보라(삼하11).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히 목사의 경우 여성도들과 감정적인 교감이 생기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에서도, 인터넷 채팅에서도.

그러면 음행은 괜찮은가? 십계명의 명령은 최악의 사례에 대한 것이지만 그보다 약한 사례들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결혼 전 성교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한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창녀 제도도 금하고 있다.

동성애도 금하고 있다(레20:13).

짐승과의 관계도 금하고 있다(20:15).

일부다처제, 이혼도 금하고 있다(말2:15).

왜 하나님은 간음을 금하시는가? 남녀의 성관계는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간에 좋게 사용되면 건강한 결혼 관계

결혼 밖에서 악하게 사용되면 심리 나쁜 결과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고전7:2-5, 5 히13:4)

건강한 부부 생활은 건강한 영적 지표이다.

구약: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신약 예수님과 교회

즉 하나님은 부부가 건강한 부부 관계를 갖기 원하신다(엡5:31-32).

바울의 서신: 간음에 대한 많은 경고

우리의 몸은 간음이나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고전6:13, 15-17).

성적인 죄는 성령 하나님께 큰 무례를 범하는 것(고전6:18-20)

세상의 유혹과 음욕

현 시대의 특징: 세상의 유혹, 거의 모든 매스 미디어가 조장하고 있다. 삼각관계 미화, 각종 음란물

주님의 말씀(마5:27-28)

드러난 죄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를 보신다.

하지만 회개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다(고전6:11).

시편51편 7, 9, 10, 12, 13, 17

성령님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결혼해야 한다(고전

7:7-9).

바울의 충고(살전4:3-8)

데니스 프래거

일곱 번째 명령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에 관해서는 오래된 농담이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내려와

이렇게 알렸습니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단 10개로 줄여서 받았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간음죄는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이 농담이 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명령이 십계명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적 욕구가 심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특히 매력적인 외부인이 성적으로나 낭만적으로 다가올 때 이것을 억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더 강력한 감정이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였음에도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람과 간음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에다 사랑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불행한 상황이 더해진다면 간음을 저항하기는 심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이것을 잘 나타내는 농담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농담은 진실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왜 십계명은 간음을 금지할까요? 그 이유는 다른 아홉 가지 명령들처럼 인간이 더 높은 문명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이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십계명이 만들고자 하는 문명의 기본 구성단위를 위협합니다. 그 구성 요소는 바로 결혼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되는 가정입니다. 가정 단위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간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예입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에 어떤 성적 부도덕을 더하는 것 즉 근친상간은 성경이 금하는 세 번째 예입니다.

왜 가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가정 없이는 사회의 안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가정 없이는 사회의 가치들을 세대를 통해 전수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헌신할 때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정은 여성들의 정서적, 물질적 깊은 필요를 다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된 어린 시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가정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간음이 가정을 위협할까요?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부부 중 한 명 또는 둘 다가 매우 쉽게 결혼 관계를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간음이 자동적으로 이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종종 그렇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음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간음의 결과 임신과 아이의 출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거의 모든 경우 버림을 받게 되고 자신의 아빠 혹은 엄마라 부를 수 있는 가정도 없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간음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항상 모든 결혼 생활에 심각한 해를 미칩니다. 간음이 만들어 내는 배신감과 신뢰의 상실은 차치하더라도 간음한 사람은 결국 자신과 가족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그들의 생각은 항상 그 다른 대상에게 있고 배우자를 어떻게 속일까에 있습니다. 간음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오는 삶 즉 속이는 삶은 배신당한 배우자가 그 일을 눈치 채지 못하더라도 결혼에 피할 수 없는 해를 끼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을 금하는 명령에는 두 배우자가 동의하면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는 별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이나 아내의 허락을 받아 혼외 관계를 가진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해를 끼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배우자의 감정적 고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 중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았다면 왜 그 부부 중 한 사람이 자기들의 결혼 생활 밖에서 사랑을 찾았어야 했는지 잘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간음을 용인하는 사회는 결코 큰 문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I'm Dennis Prager

저는 데니스 프래저입니다.

27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너는 도둑질하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5

십계명의 일곱 개 명령 설명

모두가 도둑질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아이라도 알 수 있다.

도둑질: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가는 것” 원래 의미: 물건을 제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
법적으로는 남의 물건을 불법으로 취하는 것

여덟 번째 명령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몰래 가져가는 것, 집을 뚫고 들어가서 훔치는 것, 강도질, 허락 없이 가져간 뒤 안 가져 오는 것, 항공기 하이재킹, 상점에서 물건 훔치는 것, 소매치기,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위협해서 돈 갈취하는 것 등 이것들은 소수의 명단, 성경책, 찬송가, 병원 손갈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는 것, 거짓말로 장애인 등급 신청, 정부가 돈을 거두어 마음대로 잘못된 데 허비하면 이것도 도둑질, 정부가 계속해서 빚을 저서 후대에 고통을 주는 것

일 다니는 사람이 출근 시간 속이는 것, 퇴근 시간 속이는 것,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고 하며 일 가지 않는 것, 사무실에서 자잘한 것 가져가는 것 등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사업주에게는 연간 수천억 원의 비용 부담, 국가의 경우 수 조대의 비용 피해는 모두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업체: 근무 더하라고 한다. 인원을 줄인다. 모두가 어려워진다.

사업체는 경영 실적으로 속인다. 주식 가치를 올린다. 속여서 돈을 번다.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탈취하면 다 도둑질

즉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 이득을 취하면 다 도둑질

부당하게 높은 이자로 대출해서 돈을 버는 것도 도둑질

무조건 신용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고 안 갚는 것

보험사기 교통사고, 무조건 늙는다.

하나님의 섭리

왜 도둑질이 나쁜가? 여기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하면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는다.

특별히 하나님께:

1.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죄, 주기도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백합, 까마귀를 보라(마6:25-30). 그러므로 여덟 번째 명령 준수는 믿음의 표현

2.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을 침해하는 것

여기서 소유권 개념이 나온다. 자유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것: 사유 재산권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

3. 소유권의 의미: 우리는 청지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재산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쓴다는 의미
즉 단순히 소유권이 아니라 청지기직

청지기에게는 무엇이 맡겨진다. 그러면 그는 주인의 뜻대로 처분해야 한다.

창2:15를 보라. 아담은 청지기로 일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좋은 곳에 잘 써야 한다. 노름 등은 안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음식 옷보다 노름에 돈을 더 많이 쓴다.

4.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성경은 게으름을 꾸짖는다(창3:19, 잠6:6-11). 가난은 결국 탐욕을 가져오고 도둑질을 가져온다. 피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

5.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a. 네 것은 내 것이다. 훔치는 것, b.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기심, 대다수 사람들, c.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약자들과 나눈다.

약자들을 돕는 것 아주 좋은 것, 모두 해야 한다. 그런데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사회주의, 열심히 벌어서 내 것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 관대하게 살아야 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살피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

먼저 가족, 교회,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다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신15:10

6. 사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쓰이는 돈이야 말로 영원한 소유이다.

마6:19-20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여호수아기의 아간(수7:21), 아마도 다 합치면 1000만 원정도

하나님의 말씀(수7:10-12), 도둑질하였다. 결국 심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말3:8-10). 적어도 십분의 일을 바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도둑들을 위해 죽으셨다. 도둑들 사이에서 죽으셨다, 어느 면에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무르
도둑질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두를 받아주신다.

데니스 프래거

여덟 번째 명령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모든 명령을 포함하는 하나의 명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른 명령들을 포함할까요?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입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훔치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훔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정의를 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명령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면에서도 독특합니다. 이것은 대상이 제한되지 않은 유일한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명령들은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 번째 명령은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대상을 우리 부모로 한정합니다. 살인을 금지하는 여섯 번째 명령은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명령은 간음을 금하며 그래서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 명령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간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명령은 무엇을 훔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한 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큰 것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이 다른 사람을 훔치는 것 - 유괴라고 부르는 것 -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덟 번째 명령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인간을 유괴해서 노예시장에다 파는 것 즉 가장 보편적인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허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노예 제도의 형태는 거의 모든 경우 계약된 노역으로 알려진 제도 즉 빚을 갚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2-300년 전에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노예 제도처럼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유괴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여덟 번째 명령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 명령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신성함입니다. 사람을 훔치는 것이 금지된 것같이 사람이 가진 것을 훔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시작으로 사유 재산은 자유롭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전체주의

제도는 사적 재산권을 빼앗아 갑니다. 고대 및 중세 시대에는 일부 부자들이 모든 땅을 소유했고 인구의 대다수가 소유주의 부를 위해 그 땅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뒤 19세기 유럽에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개인 재산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주장했습니다. 이런 권고를 따른 국가는 공산주의 세계로 알려져 있고, 그 결과 그 나라의 독재자들은 먼저 재산을 도둑질하고 재빠르게 자유도 도둑질하고 생명도 대량으로 훔쳐가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이 명령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각 개인이 소유한 많은 비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즉 사람들의 명성, 존엄성, 신뢰 및 지적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을 신속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의 명성. 사람의 명성을 뺏는 것- 명예 훼손, 비방, 또는 헐뜯- 은 특히 파괴적인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돈과 재산과 달리 한 사람의 좋은 이름이 도둑질당하면 그것은 거의 절대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2. 사람의 존엄성. 사람의 존엄성을 훔치는 행위는 모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 특히 공개적인 모욕은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즉 우리의 존엄성에 영구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3. 사람의 신뢰. 사람의 신뢰를 훔치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말로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식을 훔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예는 무언가를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 예정자에게 집을 팔기 위해 집의 모든 결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 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는 신실하지 않은 사랑의 약속을 하며 물질적 또는 성적 호의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4. 사람의 지적 재산. 이런 종류의 도둑질은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 복제 또는 음악이나 영화를 값을 주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표절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훔치는 것이다.

요약: 사람의 생명, 사람 납치, 배우자, 물질적 재산, 지적 재산, 명성, 존엄성 또는 신뢰를 훔치기: 도둑질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가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때때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 중 단 하나 즉 “도둑질하지 말라”는 여덟 번째 명령을 지킨다면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26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너는 거짓 증언 하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6

십계명의 아홉 번째 명령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참과 거짓 구별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여 거짓을 말함

특히 요즘 SNS 상에 거짓 뉴스, 견잡을 수 없이 퍼진다. 아닌 것으로 판명돼도 끝
모두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을 늘 하고 있다. 전화로 늘 거짓말
그래서 이 명령은 이 시대에 특히 매우 중요하다.

오직 진리와 진실만을

전화기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아홉 번째 명령을 주심(출20:16).

그 결과: 법정에서 가면 선서하고 증언한다.

‘이웃’이라는 말을 보면 그 이웃이 사회 공동체 안의 멤버임을 알 수 있다(가정, 교회, 사회, 국가 등).

이웃을 대적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과거 이교도 사회의 사법 제도, 범죄를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가 거의 없었다.

유죄로 판명날 때까지는 무죄가 아니라 무죄로 판명날 때까지는 유죄

증거 제시 규칙 등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증거를 대기 어려웠다.

또 한 명의 증인으로 인해 범죄가 입증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제도의 남용

특히 당시에는 많은 경우 범죄가 사형으로 이어짐, 그러므로 거짓 증언은 심각한 사회 문제

왕상21장 아합의 나봇 살해, 나봇의 포도원, 궁궐 옆

이세벨의 모의, 거짓 증인 두 사람(벨리알의 자손), 결국 나봇 살해

그래서 하나님은 아홉 번째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심.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랐다. 적어도 2-3명의 증인이 장로들 앞에서 증언해야 했다(신19:15).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 사람을 죽일 수 없었다(민35:30; 신17:6).

또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도 고발자가 먼저 돌을 던져야 했다(신17:7).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과 죽이는 것은 사실 다른 일이다.

요8장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양심의 가책(요8:7)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면 그가 하려던 대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신19:18-19).

하나님은 이런 장치를 통해 무죄한 자가 죽지 않도록 하셨다.

정의를 무너지면 국가가 망한다(슌8:16).

이런 장치는 현대 법정에서도 이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 거짓 증언을 없애는 것

판사를 포함해서 판결을 내리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점을 중시해야 한다.

거짓 증언은 곧 거짓말이다

아홉 번째 명령은 ‘거짓말하지 말라’로 요약됨, 거짓말은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많다.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점: 남을 해치는 거짓말은 안 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 말하는 것 즉 혀가 가장 중요한 기관(약3:6-12)

사도 바울 서신서, 성도들 분란의 대부분 역시 거짓말 때문에

증상모략을 없애야 한다(엡4:31). 비방하는 것을 모은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가십하는 것(험담), 남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명예의 중요성(잠22:1)

가십 즉 험담의 거짓말이 사람의 명예 파괴

가십을 말하는 것도 나쁘지만 듣는 것도 나쁘다.

가십은 세 사람을 죽인다: 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 당사자

그러므로 누가 합당하지 않은 가십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정직을 유지해야 한다

조지 오웰: 모든 사람이 거짓에 빠져 있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혁명과 같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현 시대 포스트모더니즘: 절대적 가치가 없다. 이것 자체가 거짓말

요즘 문제: gender ideology, 40개의 성이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더 좋다.

우리나라: 민족끼리, 미국이나 일본보다 북한을 더 믿어야 한다.

nation을 잘못 이해하였음

nation은 민족보다는 국가에 더 가깝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민족, 다른 나라

미국 One nation in one God, 다양한 사람들 한 국가

United Nations, UN

북한은 이미 한 국가이다. 공산주의 국가, 같은 말을 쓰지만 우리의 원수이다.

주민들은 아닐지 몰라도 체제가 그렇다. 북한 주민들도 거의 비슷함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고 대비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이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비핵화, 탈원전, 사대강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거짓말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특징: 거짓이 없다. 오직 진리(요14:6)

렘(5:1) 진리를 말하는 자가 없다. 렘7:28

레19:11-12, 엡4:25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속담,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

거짓말하다가 죽은 사례

아니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하다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

자기들의 말로 인해 죽게 됨

거짓말쟁이들의 종착지: 지옥(계21:8; 22:15)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습보다 더 잘 보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라(요8:32)

데니스 프래거

십계명의 아홉째 명령은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즉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평상시에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에서 어느 행동을 금지하거나 어느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령들의 준수가 문명을 만드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는 나귀를 책임감 있게 타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한 사회는 나귀를 험하게 타는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진실을 모욕하는 자를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면 정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질 때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이 문제에 매우 단호합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벌은 만약 거짓 증언이 수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받았을 벌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에 의해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의 경우, 거짓 증언자는 사형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지 이 명령은 분명히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2세기의 위대한 유대인 주석가 이븐 에스라(Ibn Ezra)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성경학자 중 한 명인 예일 대학의 브리바드 차일드(Brevard Childs)는 이 명령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차일드가 지적했듯이, 만약 십계명의 이 명령이 법정에서의

진실과 거짓에만 관계된다면 “법정에서”와 같은 말이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에는 많은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진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과 동정심은 미시적 영역, 개인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영역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진실은 동정심이나 친절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상 아프리카의 노예제도, 나치즘과 공산주의와 같은 모든 큰 사회적 악은 거짓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예 무역상, 나치주의자, 공산당원들 모두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남에게 동정심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말한 것, 그들 대부분이 믿은 것은 거대한 거짓말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거대한 악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대규모 흑인 노예가 가능했던 것은 흑인이 백인보다 못하다는 거짓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대인이 소위 아리아인보다 태생적으로 열등하다는 거짓말을 믿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없었다면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전적으로 거짓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신문의 이름이 Pravda(프라우다)로 지어졌습니다. 프라우다는 러시아 말로 진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진실은 다 그 당에서 나옴. 다 거짓말

개인적인 가학성애자나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악도 많습니다. 수백만 명을 죽이려면, 평범하고 심지어 괜찮은 사람들조차 거짓말을 믿어야 합니다. 아돌프 아히히만, 유대인 학살자, 1961년 4월, 첫 재판, 너무나 평범한 사람, <예루살렘의 아히히만> 아렌트
거대한 악은 많은 사람들이 잔인함을 추구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사실은 선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하는 거짓말 때문에 저질러집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내걸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이유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실을 중심 가치로 두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인 활동가가 나와서 미국에 2 ~ 3백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공영 방송에 나와 어떤 숫자가 있어야 하기에 그 숫자를 자기가 조작해서 만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노숙자 수는 25만에서 35만 명 사이였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압과 싸우는 단체들은 매년 유방암에 걸리는 여성의 수를 크게 과장하다가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여성을 두렵게 해서 유방 X선 사진을 찍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것 역시 좋은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지요. 왜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파괴적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데이터를 쓰면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것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 커다란 해를 입힙니다.

십계명은 무고한 생명을 즉각적으로 구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 사례를 빼고(강도 침입, 어머니 어디 있느냐? 등) 어떤 명분도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열 가지 명령은 훌륭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고안된 지침 중 가장 훌륭한 명령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훌륭한 사회는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한 만들어지거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홉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서 구 근대 사회의 근간인 십계명_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의 의미
성경말씀: 출20:17

십계명의 열 번째 명령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산상수훈 원수를 사랑하라 등
그러면서 탐욕에 대해 귀한 말씀을 주셨다(눅12:15).

대다수 사람들: 인생은 소유에 있다. 적게 들여 많이 가지고 싶다. 그러나 만족이 없다.

현시대 사람들의 이단적 사상: '다음 것은 무엇인가?' 계속 산다. 특히 요즘 온라인 쇼핑
왜 우리는 이럴까? 마음속에 죄로 가득한 탐욕이 있어서

열 번째 명령

10번째 명령: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출20:17).

탐심: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 우리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면 탐욕에 빠진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불같은 욕망

우리가 없는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

모든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대 욕구 식욕 등, 유용한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일을 하게 한다.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 인구 증가, 하나님의 뜻

친구를 갖고 싶단, 좋은 사회,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는 욕구

문제: 정상적인 욕구지만 죄에 의해 부패되기 쉽다.

부적절한 때에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것을 탐낸다. 10번째 명령은 이것 금지
에덴동산에서 이브의 타락, 죄를 짓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탐냈다(창3:6).

단순히 과일을 탐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시기

그런 위치는 원래 자기 것이 아님, 그래서 탐심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가 따라다닌다. 에덴동산 이후
인간의 죄는 다 이런 데서 비롯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다른 아이 손에 있다. 시기 질투, 욕망, 그러면 순식간에 빼앗는다.

어른들은 조금 더 교묘하게 할 뿐이지 늘 같은 죄를 짓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갖기 원하는 것을 가지면 우리는 곧장 실망한다. 다른 사람의 승진, 이사, 좋은
사람과 연애, 늘 비교하며 산다. 그리고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남이 얻으면 불만

약4:1-3

탐심에는 주로 소유물이 포함된다(출20:17). 집, 종, 짐승 등, 지금은 차, 옷, 가구 등

그래서 소비가 이루어진다.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추구하면 죄, 빚까지 저 가면서 추구하면
큰 죄, 특히 잘 살면 살수록 더 큰 탐욕

또한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 그러므로 성욕은 가장 다루기 힘든 욕망이다. 자꾸만 섹스 생각을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

출20:17의 끝을 보라. 무엇이든 네 이웃에게 속한 것을 탐하면 안 된다.

나이, 외모, 뇌, 재능, 결혼 생활, 싱글 생활, 아이들, 교회 같으면 영적인 성숙함, 리더십, 재능

매일의 욕구

많은 사람들: 탐심을 강도질, 살인 등의 큰 죄로 생각하지 않음

그러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마치며 마지막에 이것을 주셨다. 중대한 의미

탐욕은 우상 숭배(골3:5), 나룻배 사공 손님을 더 많이 실으려 한다. 결국 역사한다.

돈도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 사람을 죽인다.

구약의 대표적 사례; 수7의 아간(7:21)

거의 모든 죄는 탐심에서 시작된다(약1:14-15).

딤펴전6:5-10, 대단히 중요한 말씀

이 문제의 핵심

탐심은 마음의 문제

처음 9개 명령은 주로 외적인 것 지적, 반면에 이 명령은 곧바로 내적인 것 지적
 결국 9개와 1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분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신다.
 특히 10번째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영적인 판단 기준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
 마르틴 루터: 10번째 명령은 세상의 사악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상하게 보이는 자들 대상
 사도 바울을 보라. 회심하기 전, 외적인 모양은 다 갖추었다. 살인 거짓말 강도짓 No(빌3:6).
 롬7:7-8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나는 비참한 사람(롬7:24).

진노의 포도

아합과 나봇 사건(왕상21:1)
 나봇의 포도원은 좋음, 가까움, 생각하면 할수록 갖고 싶음
 사업 제안(2), 나봇의 거절(3), 하나님의 명령(레25:23; 민36:7)
 아합의 실망(4), 이세벨, 거짓 증인, 결국 나봇 살해
 아합이 가자마자(16) 엘리야 등장(19)

탐심을 내지 않았더라면

아합을 보라, 왕이니 거의 다 있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나봇의 것을 탐함
 대다수 사람들의 불행: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지 않은 것을 탐함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신드롬
 싱글들의 불만, 결혼한 사람들의 불만, 외모, 부모, 환경, 외부 탓으로 돌림 여기서 좌익이 나올
 여름이 되면 봄이 좋다. 가을이 되면 여름이 좋다 등

만족의 비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상황에서 만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탐욕을 물리치려면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재용 부회장, 나는 불필요, 내게 주어진 사명 완수하고 내 아내와 잘 살다가 갈
 것이다.
 아삽의 시(시73:25)
 바울(빌4:11-13)
 예수님(마6:33)

데니스 프래거

십계명에서 6번부터 9번 명령은 악한 행위인 살인, 간음, 도둑질 및 위증 행위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명령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탐내면 안
 됩니다. 즉 그들의 배우자, 그들의 집, 그들의 종들, 그들의 짐승들 또는 그들의 소유 중 어느 것이라도
 탐내면 안 됩니다.
 이 명령과 이 명령의 독특한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생각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모든 명령들은 행동을 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613개의 법 중에서 실제로 생각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계명에는 생각을 금지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탐심이 너무 자주 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탐심은 살인, 간음, 도둑질, 위증으로 이끄는 원인입니
 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탐내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것이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이유입니다. 도둑질은 피해자의
 재산을 탐낸 결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또한 많은 살인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분명히 간음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간음은 바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증-

또는 십계명의 언어로 “거짓 증언”-은 탐심에 의해 야기된 이러한 모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그러나 왜 탐심이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단 하나의 생각이며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금지하고 있는 생각들 중 하나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탐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동시에 탐심이 의미하지 않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내는 것은 “원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인 카마드(chmad)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무언가를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다”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라는 두 가지 작동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다”는 것은 단지 부러워하거나, 이웃 배우자의 경우 단순히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러움과 욕망은 십계명에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부러움과 욕망은 분명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파괴적일 수 있지만 둘 다 십계명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들 중 어느 것도 탐내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갖게 되면 거의 피할 수 없게 도둑질, 간음, 때로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명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와우, 내 이웃이 가진 집(차나 배우자)이 좋구나. 나도 저런 집(차나 배우자) 가졌으면 좋겠어.” 그것은 결국 파괴적으로 결론날 수 있지만 건설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게 하고 당신 삶을 더 좋게 만들어 당신도 당신 이웃처럼 집, 차 또는 배우자를 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속한 특정 집, 차 또는 배우자를 원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때 악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열 번째 명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 즉 10가지의 기본적인 삶의 규칙 중 하나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웃에 속한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은 신성불가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우리는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3^목 정교분리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정치 참여 의미: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성경말씀: 마22:2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3년간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근본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으로 세상을 조명하는 좋은 기회

그리스도인의 정치 발언?, 교회와 목사의 정치 발언?, 특히 국내에서는 정교분리 오해

마르틴 루터의 말: 하나님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정교분리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정치 참여 의미, 정치도 하나님의 영역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인간의 존재 목적: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산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창1: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사람들로 채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뒤 타락: 사람은 죄와 육신과 마귀의 종, 지옥행

성경의 핵심 주제: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창조 이후 1300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음

그 결과 노아의 홍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시아를 낼 조상 선택, 그가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그 뒤로 세상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

택하신 목적: 당시 이교도 세상, 포악한 지배자들, 악한 백성들,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 이후 인간의 행복을 위해 인간 정부 허용: 그러므로 인간 정부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교도 세상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우상숭배, 이교도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보여 줄 백성 필요

유대인, 그들에게 세상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율법 수여, 당시 이교도 세상은 약육강식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공의를 베풀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상속 유업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심, 희년 제도 도입, 팔려나가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자유를 주시고 속박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심, 하나님의 인간 자유 보장 방법

구약시대 전 세상은 국가 종교 시대, 국가의 수반이 종교를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함(지금의 이슬람)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비록 이스라엘에는 인간 치리자가 있어도 그는 대리인이고 진짜 치리자

는 하나님, 이것은 신정 정치이다. 기준: 하나님의 율법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면 100% 완전한 왕국

이 왕국을 가져올 사람이 메시아: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누누이 말한다.

그는 여자의 씨로 와서 사탄을 쳐부순다. 인류의 구원자, 또 유대인들의 메시아

그리고 결국 둘째 아담(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왕국 이 땅에 건설

100% 완벽한 왕국

메시아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오히려 큰 죄악을 지으며 사명 의식을 잃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함

포로 생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함

드디어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심(갈4:4)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유 선포

공생애 시작, 광야에서의 시험,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심

대언자 이사야의 책(눅4:18-19),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 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 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사61:1-2, 마귀에게 갇힌 자들 구출,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3년 반, 말씀과 표적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의 왕국 제시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배반함(마23: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왕국의 연기 발생, 그 뒤 성전이 훼파되고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떠나 유랑 생활

재림의 때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옴

그런데 공생애 끝에 가서 우리 주님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규칙을 여심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마22:21)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즉 재림 전의 신약 시대에는 더는 왕과 하나님의 권력이 하나가 될 수 없음 선포

즉 신정 국가 No,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

마귀의 기독교 공격: 국가 교회 회복

그러나 예수님 승천 후 60년쯤 지난 AD 90년경에 다시 구약시대 제사장 체계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차이: 중간에 제사장 계급이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

초대 기독교 시기: 로마 정부가 박해하면 할수록 기독교 번성, 결국 콘스탄틴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 기독교 공인, 이러면서 황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국가 교회(State church) 시작, 삼위일체 논쟁 등 니케아 공회 등 교회의 공회를 황제가 주관함, 콘스탄틴은 구원도 받지 못한 자 그는 수도를 로마에서 동쪽으로 옮기고 콘스탄티노플,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기독교를 위한다며 각종 미신에 딸 기독교 유물과 성지 지정

결국 이리다가 서로마는 476년에 망함, 이런 틈을 타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되어 세상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함(주후 450년경 레오 1세), 이래서 교회 국가(Church state)가 시작됨

교회 국가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 계급 완전히 부활시킴(신부,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로마 카톨릭 시스템 구축, 황제도 꼼짝 못하는 시대, 카노사의 굴욕,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한 것이 학교에서 배운 '카노사의 굴욕'이란 역사적 사건이다. 황제는 자신의 입지가 급속히 불리해지자 북(北)이탈리아의 카노사성(城)에 체재 중인 교황을 방문하였다. 추운 겨울 알프스산의 고갯길을 넘어 카노사 성에 도착한 황제는 눈 속에서 맨발로 3일간 서서 굴욕적으로 사면을 받았다.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성경 발간 금지, 읽는 것 금지, 오직 라틴어 미사), 구원받는 것 불가능, 이것이 바로 국가 교회 혹은 교회 국가의 최대 문제, 국가가 지정해 주는 종교인 천주교만 믿어야 함, 다른 것 불가능,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95개조 반박문, 루터의 종교개혁: 주님의 초림 이후 최대 사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행위, 행위 구원 불가능 성경이 퍼져 나가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자유의 가치를 알게 됨: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한 근대 시민 사회가 열리기 시작함, 사유 재산권 인정, 산업 혁명, 근대 시민 사회(사회 경제, 정치적 영역)

그런데 종교 영역에서는 여전히 국가 교회

루터 교회는 독일,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국가 교회

영국은 성공회: 1534년 헨리 8세의 이혼 문제, 수장령 발표, 왕이 교회의 수장, 영국 국교회 성공회

1540년경 칼빈의 개혁 교회: 제네바, 역시 교회가 제네바 시를 다스리는 국가 교회

1560년경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칼빈에게 성경을 배움, 장로교회

그러면서 영국의 비국교도(청교도 등)들이 신앙의 자유 요청, 대표적 사례: 천로역정, 존 번연 등

1620년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영국 플리머스 항 출발 신대륙으로 이동함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신대륙에서도 문제 발생

청교도(개혁신교 장로교), 천주교, 성공회 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자기들끼리 국가 교회를 하려고 함
그때에 침례교인들 등장; 국가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영국과의 식민지 전쟁, 1775년 패트릭 헨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결국 1776년 미국 독립, 1782년 헌법 제정: 미국의 헌법에 인류 최초로 양심의 자유 허용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이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미국의 자유 헌법 수용
현재 100% 국가와 교회의 분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 이것을 국가와 교회의 분리로 이해하지 않고 '정교분리'라고 함.
앞의 글자 정을 정치로 이해하므로 이런 문제 발생,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 발언 No!
이것은 정부와 교회의 분리 혹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말한다.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 교인들이 알가알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프레임, 교회는 정치 발언하지 말라. 이것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다. 이미 신사참배하라는
것 자체가 양심의 자유 압박하는 일, 이런 프레임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목사와 교회의 위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정치 제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미국의 자유 헌법 이후 투표를 통해 지도자 선출
성경에는 이런 제도가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로 이루어지는 국가 통치의 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 배워야 한다. 그 기본 원리는 미국의 자유 헌법에 들어 있다.
자유 헌법을 만든 미국을 보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려면 이런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목사들 필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위해 대학을 만들, 그 대학들이 바로 아이비리그 학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등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진리를 가르치며 사회를 이끌고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육, 예술,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진리이다.
그러면 인간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 정치
대한민국과 북한을 보라: 똑같은 사람들, 말, 문화,
그런데 1945년 해방된 뒤 74년이 지난 지금, 하나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 자유로운 국가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독재 국가, 자유 없음, 획일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치,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

정치는 어떤 특별한 것도 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가정 사람의 확대가 국가 정치이고 국가 경제이다.
가정 살림, 당연히 내가 챙긴다. 정치 = 나라 살림, 당연히 국민이 관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은, 크리스천들도, 불교도들도,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부당한 것이 있으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니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무: 대위임, 온 세상 창조물에게 복음 선포(마28)
그런데 세상을 보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믿음 생활 불가능, 유물론
안보가 무너지고 체제가 바뀌어서 공산화되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
그 전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
이집트 생활, 파라오의 유대인 핍박, 사내아이들 다 죽여라, 산파들 불복종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권력에 불복종
초대 교회 사도들, 권력에 불복종
우리는 투표를 통해 당선된 자들을 지도자로 인정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면 반드시 비폭력 항거해야 한다.

투표로 응징해야 한다.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지금 투표를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하나님의 뜻 실현 한국이 적화되면 국민과 크리스천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나요?

그런 고통을 당해도 되나요? 정치에 관여 말고 기도만 하라는 자들은 바보이거나 사악한 자입니다. 미국의 경우 침례교 우세, 선거 때만 되면 보수주의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지지 선언

델러스 제일침례교회, Robert Jeffress 목사님, 폭스 뉴스, CNN, 트럼프 지지 선언
트럼프 힐러리 클린턴, 존 맥아더 목사님, 트럼프 지지

백악관 대변인, 새라 샌더스, 아버지는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아칸소 주), 침례교 목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주지사 협회 회장, 동성애 반대, 기독교를 탄압하지 말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와 교회 분리 이미 이루어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도 된다.

지금은 투표로 지도자 선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기독교 가치 지켜줄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

동성애, 진화론, 낙태, 과격한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
기독교인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가치 지켜 줄 사람을 뽑아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웨인 그루템의 성경과 정치를 20번이나 강해하였다. 자유를 주는 시스템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현시대 그리스도인의 책무

세계 역사를 보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자유 헌법 창시: 이들이 본 것, 개인과 통치자, 지도자들이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쓰면 개인과 국가 번영,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성경에서 자유 헌법을 만들고 진리를 추구하려 함
세상에 존재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됨, 앵글로 색슨족, 대한민국은 이승만 덕택으로
막차를 탔음, 해양 세력

서구 근대 사회의 근간: 주디오 크리스천 가치, 십계명과 기독교의 자유정신

반면에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스, 베네수엘라, 쿠바, 아르헨티나: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감,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유토피아 건설, 무상 복지, 의료, 교육 등 인기 영합주의, 사유 재산 부정,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차이 부정, 세상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와 국민이 됨

개인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들어가면 국가는 망한다(중세 로마 천주교, 이슬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면 복음 전파 불가능, 생존 불가능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 시도, 자유를 없애려고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무상복지 확대,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 확대: 국가가 망하는 길, 근면하게 일하지 않으면 망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52시간 이상 얼마든지 가능해야 한다. 최저 임금 국가가 정할 필요
없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교육: 자사고, 외고 모두 없애고 일반고와 혁신고학교, 제한하면 안 된다.

우리 인간에게는 원하는 교육, 의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금지 법 제정: 결국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것, 기독교가 무너지면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들과 교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마땅한 의무이다.

목사: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잠 22:3)
지난 70년간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번영하며 모든 것을 누리고도 대한민국 부인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의 확장(반대세), 반대세는 대개가 좌익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 중북 친중,
반미 세력, 선동, 법치 파괴

성경의 판결: 이런 개인과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려야 이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목사들이 외쳐야 한다.